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정금보다 더 귀하게

은혜와 평강교회 40주년 맞아
 “교회는 백악관 청와대 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기관”

은혜와평강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예배를 2일 오전 11시에 드렸다.

이날 지난 5월 31일(금)부터 1일(토)까지 부흥성회를 이끈 황인철 목사(남부산교회)가 설교했다. 데살로니가교회(살전1:1-10)란 제목으로 설교한 황인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고 성도들에게 강조했다.

그는 “데살로니가교회는 3주밖에 안 되었지만 믿음 생활을 잘 한 비결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쏟아져야 설 수 있기에 은혜를 사

모해야 한다”며 “말씀을 들을 때 잘 흡수해야 하고, 완전한 여호와 의 율법을 의지해 우리 영혼이 소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만 잘해도 불이 붙는다. 하나님은 청와대나 백악관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며 “하버드대나 서울대를 통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평강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 했다.

황 목사는 “이 교회에 성도들과 목회자가 다 집에 가도 내가 문을 잠그고 나가리라는 성도가 많을 수록 복된 교회가 될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말씀이 심령 속에 뿌리 내려서 믿음을 단단하게 해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며 “서로 존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만대에 임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은혜와평강교회는 40주년 기념 회로 서기를 다짐했다. 예배 후 기념 감사축제가 이어졌다.

토마스 멩 기자



은혜와평강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예배를 2일 오전 11시에 드렸다. 예배 후 단체사진. ©기독일보

“예수를 ‘메시아 중 하나’라 하는 AI시대, 두고 볼 것인가”

“AI의 발전 속도에 놀라고 흥미로워할 것인가. 이미 도래한 AI시대, 기독교인은 어떤 대안을 계획하고 시도하고 있는가.”

‘2024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FMC)’가 3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양재 The K 호텔에서 개막했다. 콘퍼런스에서는 AI 시대 한

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미디어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이 분야 전문가들이 메시지를 전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한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CGN 이사장)는 “복음은 그 시대의 문화를 배제하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없다”며 “건강한 콘텐츠를 널리 알

리는 것보다 막는 것이 시급한 시대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시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며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되던 세계관이 매우 짧은 시간으로 단축됐다. 많은 사람의 공감과 의견을 따라 형성된 의견은, 소수가 의도적인 계획으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세계관을 만들어 유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인간 너머의 세계,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철학을 논했다면, AI 이후는 물질, 본능 등 인간 이하의 세계를 중심으로 내려 왔다”며 “과거엔 윤리적 책임성이 분명했다면, 이젠 기계가 사상을 만들고 그 사상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까지 왔다”고 했다. → 6면에서 계속

주안예교회 최혁 목사 연말 사임 제2대 담임 청빙

주안예교회가 2대 담임목사 청빙을 시작했다.

지난 2일 교회는, 이 교회의 담임인 최혁 목사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안예교회(ICC,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총회서부노회)가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담임목사 자리를 내려놓고 제 2대 담임목사를 청빙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3년 최혁 목사가 개척한 주안예교회는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1,7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오며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왔다.

또한, 36개 국의 80 여명의 파송/협력선교사와 미자립교회 및 선교 단체들을 섬기고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한 4개 동의 교육관 체

플 건축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교회에 따르면, 최혁 목사는 아직 다음 사역지를 정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것이라 밝혔다.

청빙절차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연말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최혁 목사는 주안예교회 설교사역을 내려놓고, 외부 설교사역과 부흥회 인도를 할 계획이며 청빙과정에서 어떤 관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연말에 돌아와 인사하고 사임할 것이라 전했다.

제2대 담임목사 청빙과정은 ‘청빙위원회’와 당회가 하나님의 뜻과 교회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새 담임목사 신청서는 오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접수받으며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주디 한 기자

지면 안내

- 2면 위기는 원하는 것, 의지할 것을 얻었을 때, 밀알 사랑의캠프, 한여름 말씀축제, 좋은비전 말씀 콘서트
- 3면 [인터뷰] 복음과 성경, 세상도, 아들도, 사망도 이기는 무기
- 4면 [졸업식]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은? 삼겹줄 되어 각자의 사역 감당하라
- 한인기독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 연주회
- 6면 [아수]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 해임 결의 [세미나] 설교는 쥐어짜는 것 아닌, 넘침으로부터
- 8면 삶을 예배로, 일터를 선교지로, 행복 전도사 출판감사예배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시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터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변호사"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가로 인연 스토리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그레임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재단이사장 한기홍 박사
 총장 최규남 박사

2024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되는 곳!
실린다 나의 미래

원서접수 일정
 · 원서 접수 마감 : 7월 31일까지
 · 개 강 : 8월 26일

입학설명회 <설명회 참석자 입학금 면제>
 1차 : 2024.6.17(월) 5:00pm (미국 서부시간)
 2차 : 2024.7.15(월) 5:00pm (미국 서부시간)
 ZOOM ID : 954 257 1647 PW : 2020

입학 절차

1. 원서접수
www.gm.edu에서 Apply메뉴 클릭
2.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필요서류 제출
3. 인터뷰
온라인 인터뷰 진행

교육인가기관
 ats trocs ABHE BPPE

입학 특전

- 유학생 I-20 발행
- 선교사 및 목회자 장학금, Early Bird 장학금
- 연방정부 장학금 및 학비유자 (FSA)
- 통신(Online)수업으로 학위 취득 가능
- eBook Library Service 제공

학사 Bachelor Of Arts
 · 신학 (BATH)
 · 기독교상담학 (BACC)

석사 Master
 · 목회학 (MDiv.)
 · 기독교 교육학 (MACE)
 · 선교학 (MAICS)
 · 기독교 상담학 (MACC)

박사 Doctor
 · 선교학 (DMiss)
 · 교차문화철학 (PhD ICS)
 · 교육학철학 (PhD ES)
 · 상담심리학철학 (PhD CS)

[Apply 바로가기] [입학설명회 ZOOM]

www.gm.edu admissions@gm.edu (714) 525-0088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위기는 원하는 것, 의지할 것을 얻었을 때”

원하트 미니스트리 10주년 기념, 마커스 워십 연합집회

5월 31일(금)부터 6월 2일(주일)까지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 박 목사) 10주년 기념 찬양집회가, 마커스 워십(심종호 예배 인도자, 박은미 보컬, 권미성 건반)과 연합으로 남가주사랑의교회(5/31), 주님의영광교회(6/1), 에브리데이교회(6/2)에서 개최됐다.

6월 1일(토) 오후 6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예수 우리와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집회에서 마커스 워십과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신 곳에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만 의지해’, ‘그 사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등을 찬양했다.

이날 피터 박 목사는 마 28:17-20을 본문으로 <예수 우리와 함께>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종말 영화를 좋아한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끝이 있다. 저는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번째, 물리적 세상의 끝이 있다. 두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는 날이 세상의 끝이 아닐까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했다.

이어서 그는 원하트 미니스트를 LA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원하트 미니스트리가 입주해 있던 건물이 통째로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을 놓고 나가야 하는 큰 시련이 닥쳤고, 갈 곳조차 없게 된 상황에서 한 목사의 도움으로 작은 공간을 빌려서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원하트 미니스트리의 후원자를 찾기 시작했고, 후원을 받기 시작했을 때 처음과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때, 제 의지가 바뀌더라. 건물에서 쫓겨났을 때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에게 후원을 받게 되면서, 겉으로는 거룩하게 사역하지만 교묘하고



5월 31일(금)부터 6월 2일(주일)까지 원하트 미니스트리 10주년 기념 찬양집회가, 마커스 워십(심종호 예배 인도자, 박은미 보컬, 권미성 건반)과 연합으로 개최됐다.. ©기독일보

간사하게 제가 자주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들어왔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을 때, 마음 아픈 결과 초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역,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을 때 사무실을 잃어버리는 것 보다

더 마음 아픈 결과가 나오게 됐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의지하는 것을 얻었을 때, 여러분의 교회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 이 예배를 통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

지하고 있는가?”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찬양문화사역단체인 원하트 미니스트리(oneheart-usa.com)는 화요모임, 외부집회, 미디어, 초청 강의, 아트& 디자인 사역 등에 함께 할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남가주 밀알 “뿌리” 주제로 사랑의캠프

6/20~22,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롱비치 캠퍼스

밀알선교단에서는 매년 여름 남가주와 북가주, 밴쿠버, ANC GM 등 서부지역 밀알지단과 교회들이 연합하여 ‘사랑의캠프’를 개최한다.

사랑의캠프는 발달장애 청소년, 중증 재가 장애인 및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의 벽을 뛰어 넘어 말씀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남가주와 북가주, 밴쿠버 등 미주 서부지역 밀알 스텝, 봉사자, 장애인 참가자 등 400여 명 정도가 2박 3일 간 예배, 성찬식, 세족식,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그리스도 안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

올해 역시 아름답고 안전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롱비치 캠퍼스(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Long Beach)에서 6월 20일(목)-22일(토)까지 2박 3일동안 사랑의캠프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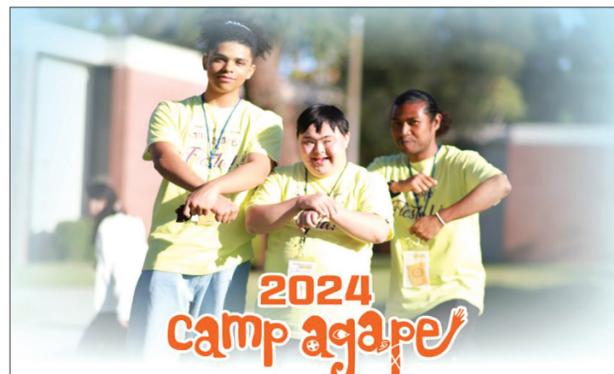
이번 사랑의캠프 주제는 (골로새서 2:6-7)의 ‘뿌리’란 뜻의 ‘Roots’으로 정했다. 참가자와 봉사자들 모두 이번 캠프를 통해 예

수님 안에 더욱 깊이 뿌리 박고 믿음에 굳게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캠프 첫 날은 CSU Long Beach에 도착해 개회예배를 드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세족식과 성찬식에 참여한다. 둘째 날은 참가자들을 성인팀과 아동팀으로 나누어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수영, 장기자랑, 댄스파티 등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은 팀별 공연과 기도와 나눔의 시간을 가진 후 폐회예배

로 마치게 된다. 밀알선교단은, “사랑의캠프를 위해 많은 밀알가족들이 기도와 펀드레이징으로 섬겼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이 캠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여러 후원자 사랑의 손길을 모았다. 캠프를 위한 재정과 봉사자들, 후원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주디 한 기자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Long Beach 캠퍼스에서 밀알선교단 주최로 2024 사랑의캠프가 개최된다. ©밀알선교단

2024 한여름 말씀축제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서 노진준 목사 초청 말씀 축제



사우전드 옥스 지역에 위치한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이요셀 목사, 2630-A Townsgate Rd. Westlake Village, CA 91361)에서 6월 14일(금)부터 16일(주일)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여름 말씀축제를 진행한다.

노진준 목사(순회 설교자, 설교코칭 미니스트리_PCM 공동대표)가 강사로 선다.

일시: 6/14(금) 오후 8시, 6/15(토) 오후 7:30, 6/16(주일) 오전 10시

6월 14일~16일까지 2024 한여름 말씀축제가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에서 열린다.

말씀 속으로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더 멀리

오렌지카운티 라브라 지역에 위치한 좋은비전교회(최준우 목사)가 설립 5주년을 맞아 이번 주일인 6월 9일 설립 감사예배를 드린다.

또한 6월 11일(화)~14일(금)까지 저녁 7시 30분에 노창수 목사(남가주 사랑의교회), 고현중 목사(디사이플교회), 안효성 목사(일신장로교회), 권도근 목사(나들목 비전교회)를 초

청해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더 멀리 세상속으로... 함께”라는 주제로 5주년 기념 말씀 콘서트를 연다.

일정: 6/11 노창수 목사, 6/12 고현중 목사, 6/13 안효성 목사, 6/14 권도근 목사
 주소: 1601 West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문의: 714-482-3649, 714-482-3649

장영출목사 초청 부흥회

할렐루야!

예수제자선교회 대표로 계시는 장영출 목사님을 초청해 부흥회를 엽니다. 제한 없이 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세요.

1차
 일시 : 2024년 6월 9일(일) 오전 10시
 장소 : 하톤교회(김주현 목사)
 5412 W. 124th St. Hawthorne CA 90250
 전화 : (714)900-0007

2차
 일시 : 2024년 6월 9일(일) 오후 2시
 장소 : 선한 빛 교회(김선광 목사)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전화 : (714)588-3355



장영출 목사
 -공군사관학교 졸업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미국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졸업
 -미국 서튼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졸업
 철학박사, 신학박사
 -공군 군중감 역김
 -예수제자선교회 대표
 -재생산제자사역 대표
 -뉴라이프복음방송 설교자
 “복음의 본질과 생명의 영성” 저자

발렌시아 샘물교회 이견창 목사, 안보슬 사모 인터뷰

“복음과 성경, 세상도, 어둠도, 사망도 이기는 무기”

발렌시아 샘물교회가 오는 6월 9일(주일) 가 20주년을 맞아 창립 감사예배 및 임직예배를 드린다. 발렌시아 샘물교회를 개척한 이견창 목사를 만나 소감과 앞으로의 비전과 다짐에 대해 들어 보았다.

20여년 전 알칸사스에서 경영을 공부하고 있을 때, 한 질문이 찾아와 그를 두드렸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학비로 내며 공부하던 그는, 그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이 왜 자신을 미국에 보내셨을까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시기 위해 미국에 보내셨다는 것이었다.

올해 20주년을 맞는 발렌시아 샘물교회 이견창 목사는 분명한 하나님의 콜링으로부터 그의 목회가 시작되었다고 회고했다.

‘100퍼센트 복음, 100퍼센트 성경을 선포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산타클라리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그는 첫 가정이 전도 되어 나오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했고, 개척을 하면서 사람이 오건 안 오건 화요일 저녁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그러자 이전 교회에서 EM 사역을 할 때 왔던 성도가 교회를 찾아와, 3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공부에 참석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없는 켄터키주에서 유학생들을 했기 때문에, 미국교회에서 배운 것들, EM 목사로 섬기며 배운 것을 함께 녹여, 1세뿐 아니라 영어권 자녀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목회를 하려는 비전을 품었다. 최대한 영어권과 소통을 이어가려 노력했고, 이에 국제 결혼한 부부들, 2세들이 찾아왔고, 교인수가 많지 않을 때에도 영어권 전도사가 함께 사역했다.

20년의 사역, 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우리교회 작지 않아요. 아주 큰 믿음의 교회예요”

“제가 저희 교회 사정을 설명하다가 ‘저희 교회가 작잖아요’라고 했는데 한 집사님이, 바로, ‘우리교회 작지 않아요. 아주 큰 믿음의 교회예요.’라고 하신 적이 있었다. 또 1년 후에 비슷한 얘기를 나누다 또 다른 분도, 저에게 바로, ‘우리교회 작지 않아요. 아주 큰 믿음의 교회예요’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시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얼마전 CTS에서 이민성도들 대



발렌시아 샘물교회 이견창 목사는 지난 2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역의 현장이었다고 고백했다. 안보슬 사모는 힘들었던 때 썼던 다이어리 안에 오히려 성령 충만한 기록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기독일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역의 현장이었다”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민자가 줄고, 이민교회가 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미주 한인 교회가 축소될 것이라는 대한 암울한 전망에, 이견창 목사는 모든 것을 이기는 것, 즉 복음의 능력에 대해 강조했다.

“하나님, 저를 개척교회 무덤 같은 곳에 보내신 거예요?”

“저희가 개척한 것이 2004년, 발렌시아 지역에 불이 시작되어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한인 커뮤니티도 많이 유입되던 때였다. 인구가 유입되면서 교회가 3년 사이에 16개까지 늘어났는데 2015년을 지나면서, 교육 문제가 해결된 분들이 많이 떠나 지금은 교회가 5개로 줄었다. 갑자기 교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교회가 7-8개 쪼뻤을 때, 새벽예배 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 저를 개척교회 무덤 같은 곳에 저를 보내신 거예요?’ 라는 마음이 들었다. 이러다가 나도 없어질 것 같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면, 내 능력이 더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니니? 내 능력을 더 드러내길 원하니?’ 라는 마음을 주셨다.”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교회 역사가 정치와 가까웠을 때를 빼고는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다고 본다. 사무엘이

사역했을 때, 예레미야가 사역했을 때, 에스겔이 사역했을 때보다 우리 사역의 현장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걸음을 따라가 보면, 우리는 새 발의 피라고 생각한다.”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제 마음에 항상 다른 시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교회 개척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과연, 하나님의 사역은 꼭 어려워야만 할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만 시키는 분은 아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작게 분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건과 상황을 훨씬 뛰어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믿음이 있다. 그것 하나면 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며 프로그램으로 해결해 보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에게 복음과 성경이라는, 세상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어둠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는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는 옆에 두고 다른 무기로 해결해 보려 애를 쓰는 느낌이다. 저는 원초적인 근본적인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먼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복음과 성경,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이기잖아요,’ 그런 현장을 역전시키는 교회, 목사님, 성도

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가 개척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피했으면 좋겠다,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작은교회라고 해서 너무 쉽게 성도를 임직하지 말자. 그것은 자기 사역 깎아먹기라고 본다. 임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도들 안에, ‘작은 교회는 다 쉽다’라는 생각, ‘나는 이 정도 했으니 임직 받아야 해’라는 생각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깔려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최대한 원칙을 지켰다.”

“또 하나는, 교회 잘 다니는 분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으면 절대 터치하지 않아야 한다. 목사는 인격과 신뢰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기존의 잘 다니고 있는 성도에게 눈독 들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 주신 양으로 목양을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해진다.”

마지막으로, 20주년을 맞이하며, 교회를 새롭게 재정비하고, 교인들의 신앙교육을 더욱 체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년이 되는데 비즈니스 샵인 샵이라고하는 비즈니스 전략이 있다. 예를 들면 반스앤노블스 서점에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

다. 개척 안에 또 개척의 마음으로 그렇게 출발하기 원한다. 그래서 저희 교단 목사님들 다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임직을 하기로 했다.”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반토막 났다. 기대감에 부풀었다가도 막상 현장을 딱 보면,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고 속상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지금까지 20년 동안 네가 발렌시아 샘물교회 사역을 해 오면서, 내가 함께 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다시 힘을 얻었다. 다른 것은 이렇다 저렇다 평가 받을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역의 현장이었기에, 새로운 다짐을 갖고 인도 해주실 것을 믿는다. 저는 힘들고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은혜가 더 큰 현장이었다는 것을 나누고 싶다.”

20년의 개척의 자리에 함께 한 안보슬 사모의 소감도 놓칠 수 없었다.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궁금했다.

“힘들면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셨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라.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다.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너무 싫었다. 그럴 때마다 무릎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만나 주시고 큰 위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셨다.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다. 정말 힘들었던 해에 썼던 다이어리를 나중에 다시 보는데 힘들었던 내용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도, 말씀, 성령 풍만한 노트를 보게 되었다. 그 힘이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시작한 개척의 자리, 자녀의 신앙교육은 어떻게 했을까?

“아이에게, ‘엄마 아빠와 사역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줬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지만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심어주었고, 아주 어릴 때 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엄마는 너희가 너무 자랑스럽다. 사람도 공짜가 없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너희에게 때에 맞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해주었다.” 주디 한 기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소그룹 평신도 리더십부터 세워야 합니다

강의 주제 1
건강한 교회와 소그룹

강의 주제 2
건강한 소그룹의 목회적 적용

강의1 (오전10:00 ~11:15)	건강한 교회와 소그룹 - 로이스 조 원장
강의2 (오전11:30~12:45)	건강한 교회의 목회적 적용 - 로이스 조 원장
점심식사 (오후12:45~1:45)	식사 및 교제
강의3 (오후1:45~3:00)	소그룹의 소통 - 씨니 김 목사

일 시: 2024년 7월 8일(월) 오전 10시
등록마감: 2024년 6월 30일(일)까지(선착순 30명)
장 소: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주 최: 기독일보
문 의: 기독일보 (213)434-1170
 Email : chdailya@gmail.com



강사 : 로이스 조 원장
 Fuller Seminary MA
 미연함감리교회 소그룹 아카데미 훈련원장 역임
 CRC 커피브레이크 북미주 부대표역임
 Small Group & Leadership Academy 대표



강사 : 씨니 김 목사
 풀러신학교 선교학 박사
 LA씨티교회 담임목사
 미주장로회 신학대학 실천신학 교수
 아시아선교연구소 연구원

소그룹 리더 세미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은 꿈을 꾸지 않는 것

미주장로신대 44회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가 44회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1일 오전 10시에 홀러튼장로교회에서 드렸다.

이날 6명의 신학학사, 11명의 목회학석사, 4명의 목회전문코칭석사, 6명의 상담심리석사, 6명의 선교학석사, 4명의 전문코칭석사, 2명의 선교학 박사, 13명의 선교학 철학 박사, 1명의 명예 철학 박사 등 총 53명이 학위 취득을 했다. PGM 국제대표인 호성기 목사가 명예철학박사를 받았다.

이날 이상명 총장은 “하나님이 가장 슬프게 여기시는 일은 꿈을 꾸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은 꿈 꾸

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비전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연령에 상관없이 꿈을 꾸고 이뤄 나가야 한다”며 “꿈으로 풍성한 일상을 채워나가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 사역의 현장에서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학위 취득을 축하드린다”고 했다.

1부 감사예배에서는 사회에 이요한 목사(학생인재개발처장), 기도예 고종필 목사(대학기관연구처), 말씀에 서명성 목사(KPCA 직전총회장), 축도에 서명성 목사(KPCA 직전총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학위수여식에서는 사회에 강정자 교무처장, 명예철학박사 학위수여식, 학사보고, 학위수여식, 시상(학사, 석사과정), 박사학위 후

드식, 졸업생 스피치, 격려사, 광고, 교가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한 졸업생은 “나에게 논문 작성

은 후지산 등반과 같았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많은 교수님의 지원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설수 있었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가 44회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1일 오전 10시에 홀러튼장로교회에서 드렸다. ©기독교일보

삼겹줄 되어 각자의 사역 힘차게 감당하라

월드미션대학교 33회 학위수여식 졸업생 107명 배출 윤성환 목사, 전경호 목사 명예 박사 학위 받아

월드미션대학교 33회 학위수여식이 6월 1일(토) 오후 1시에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스페니쉬 프로그램 졸업생을 포함해 학사과정 53명, 석사과정 53명, 박사과정 1명 등 모두 107명의 졸업생들이 이날 배출됐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신선목 부총장과 최윤정 입학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사회자의 개회선언에 이어 윤에스터 교수가 기도했다.

학사보고, 학위수여에 이어 임성진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전하는 연설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겜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해, 졸업생들이 각자의 맡은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면서 이 시대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번에 임기를 마치고 이사장직을 이임하는 윤성환 이사장께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이어 명예박사 수여식도 거행했다. 월드미션대학교의 이사장 윤성환 목사에게 명예인문학박사 학위를, GDEW 공동체 대표인 전경호 목사에게는 명예선교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올해 졸업식에서 총장상을 수상한 MDiv 졸업생 안은준 학우(A국 선교사)가 졸업생들을 대표해 답사를 전했고 스페니쉬 프로그램의 Luis Morales 목사(Vida Real International 대표)가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끝으로 명예선교학박사 학위를 받은 전경호 목사의 축도로 제 33회 학위수여식을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33회 학위수여식이 6월1일(토) 오후 1시에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열렸다. ©기독교일보

한인기독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 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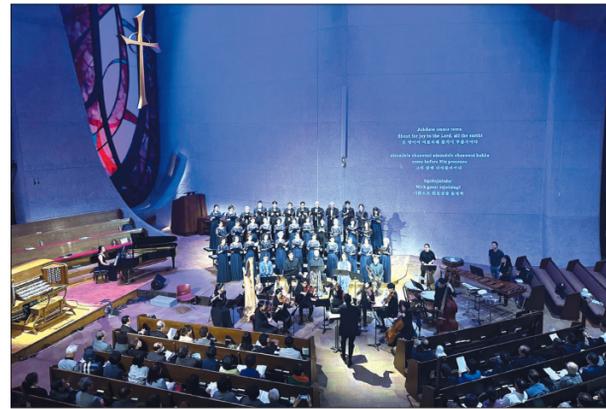
한인기독합창단(단장 김은영)의 창단 40주년 기념연주회 멘델스존 “엘리아”가 오는 6월 15일(토) 저녁 6시에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창단 40주년 기념연주회에서 연주될 작품은 19세기 낭만 음악을 대표하는 독일 작곡가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 1809~1847)의 오라토리오 “엘리아”이다.

이번 기념연주회에는 제갈소망의 지휘아래 한인기독합창단

원들이 소망중창단(단장 이태보라)과 한인기독오케스트라(악장 김정아)와 특별초대 아티스트(소프라노), 김주혜, 이영주, 크리스틴 오메조 소프라노) 김우영, 심현정(테너) 김성봉, 백동휘, 이규영(바리톤), 채홍성(엘리아 역), 크리스 방과 함께 총 90여명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공연문의: (213) 503-0812, contact@kccsca.org, www.facebook.com/lakccs



한인기독합창단.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교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이인규 고문변호사: 정찬용
 지사: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T.(213) 739 - 0403 / E-mail: chdailya@gmail.com
 주소: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B T 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 전기세 50~90% 절감 ***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3년 설치 시)

100% Made in USA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www.btssolardesign.com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요.
 1. 문의 전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세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Lic#854389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하는 특별 행사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

시니어를 위한 청춘 사진관



ISO 200

만 64세 이상의
시니어라면 누구나!

(가정의달 이벤트 참여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센터메디컬그룹



단독 사진

부부 사진

(두 종류 중 한가지를 선택!)

오늘의 가장 젊은 당신의 순간을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하세요.



이곳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세요

6월 7일, 21일

(9:30am - 12:00pm)

소스몰 센터메디컬그룹 사무실

(E-PLEX가 위치한 건물 6층 D-611에 있습니다.)

6940 Beach Blvd D-611, Buena Park, CA 90621



본 이미지는 소스몰
2층의 안내 지도입니다.

본 행사 예약자는 센터메디컬그룹의 홍보성 메시지를 수신동의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월~금 오전 8시반~오후 5시반]

문의전화

(714) 904 - 1701

서울신대 징계위 '유신진화론' 박영식 교수 해임 결의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박사) 교원징계위원회는 6월 4일 '유신진화론 논란'을 일으킨 박영식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박영식 교수는 4일 자신의 SNS에 "정식으로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고,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알렸다.

서울신대는 건학 및 교육 이념 위배,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박 교수를 학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1차 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열렸으며, 박 교수 측의 변론을 청취하고 제출한 자료를 추가 검토하기로 하고 추후 소집하기로 했다.

박영식 교수는 "그래도 마음은 평안하고 후련하다. 기도해 주신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박사)는 '유신진화론 논란'을 일으킨 박영식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보통은 뒷목 잡고 쓰러져야 하는데, 앞으로 웃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의 기도가 제게 준 평안인가 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이제 마음

놓고 제대로 싸울 수 있어 기뻐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결케 하라는 명을 주신 것으로 알겠다"며 "아무튼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된다. 폭 자고 일어나 제 할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박 교수의 해당 글은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국·공·사립을 망라해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원들은 누구나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는 교원들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사 및 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대웅 기자

"AI 시대, 기독교 데이터 모아야"

→ 1면 기사 <"예수를 메시아 중..."에 이어서
또 "과거엔 성찰과 과정에 의존했다면, 이제 속도와 결과에 의존한다. 수평적 평준화에서 AI를 접하지 못하거나 지식이 부족한 이들이 종속되고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시대"라고 했다.

이목사는 AI 기술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될 부분은 '양육'을 꼽았다. 그는 한국교회 기존 양육시스템의 약점으로 △개별 교회 안에서 양육 콘텐츠를 모두 해결하려는 점 △오프라인 양육 중심으로 이뤄져 사회활동이 많은 성도들이 배제되며 △갈급한 성도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자립 양육을 시도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렇게 스스로 신앙의 빈칸을 채울 경우, 문제는 편향된 콘텐츠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비슷한 성향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기에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하고, 초기에 선택한 성향에 갇히게 돼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에 신앙생활에서도 독단적·고집적 편견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목사는 3년 전 기독교 OTT 플랫폼 풍당(fondant)을 시작한 배경으로 "20년 전 교인들이 비디오를 빌려보는 것을 보고 '교회는 무엇을 빌려 줄 수 있는가'를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이후 가정에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각 교인들이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OTT 플랫폼으로 교회가 힘을 합치고자 풍당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풍당의 특성에 대해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을 보완해 주는 시스템을 적용해 균형을 이루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정·의가 조화된 전인적 신앙교육을 꾀하고자 했다. 이목사는 "개별 교회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풍성한 콘텐츠를 누릴 수 있다. 안심하고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콘텐츠를 개교회에서 양육콘텐츠로 함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목사는 "세상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수준에 머물 것이지만,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HI(Holistic Intelligence)를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세상에 고립되지 않고 AI 기술이 어디로 가는지 소통해야 하며, 거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유통시킬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Holistic AI 제작에 전 성도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대한 기독교 데이터 서둘러 모아야"

'AI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다음세대를 가르치게 될 것인가'를 발제한 최진호 교수(미국 에모리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세상에서 개발한 AI 모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샌가 예수가 메시아 중의 하나로만 여겨지는 세상에서 살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최 교수는 기독교 가치관에 부합하는 AI를 위해 교회의 역할로 "데이터를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며 "방대한 기독교 역사가 가진 각 기관과 교회의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통해 학습 모델을 만들어 보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동시에 기독교 가치관에 부합하는 AI 검증하는 단체도 있어야 한다/ 결국 사람들의 데이터가 많이 모여야 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개인과 의견을 주고 받는 장을 만드는 시스템, 기관과 교회의 연합을 통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교회의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미국 인공지능 플랫폼 Cloudflare 한국지사 김도균 대표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고 복음의 원본은 성경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원작이라는 것을 AI 시대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DeepFake), 악성 봇(Bot)의 증가로 출처 확인이 불가능한 미디어 상에 노출되고 있는 콘텐츠 양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건물, 같은 교회 성도라는 개념이 사라질 수 있는 미래에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에 대한 갈급함이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AI가 채울 수 없는 사역자들과 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미디어도 기술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채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호 기자

"설교는 쥐어짜는 것 아닌, 내적 충만으로부터"

미주복음방송과 MiCA (Missionary Church Alliance)가 공동 주최한 '2024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4일(화),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열렸다.

'복음중심의 설교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남가주 지역 여러 교회의 담임목사와 부목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고 미주복음방송의 김지연 아나운서의 사회, LA 온누리교회 이정엽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되었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로 선 박신일 목사(벤쿠버 그레이스한인교회)는 설교에 대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설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깨닫고 해석해내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 넘쳐 흘러서 전달되는 것이며, 설교를 위해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복음중심의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 자신이 설교자로서 깨달음이 깊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누리며, 복음주의 신학 위에 목회 철학과 방향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목회자들이 성경공부에 전착하여 말씀을 깨닫고, 어미가 젖을 먹이듯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급할 때 성도들이 변화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다. 마태복음의 한 본문을 선택해



박신일 목사 초청 2024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6월 4일(화)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개최됐다.

그 본문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목상을 나눴을 때, 이내 장내 분위기가 숙연해지며 흐느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강의를 마무리 하며 박 목사는 복음이 본질이며, 이 본질이 방법론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상훈 목사(MiCA의 대표 디렉터, 미성대학교의 총장)가 MiCA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나누고 이영선 목사가, 30~40세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MiCA와 남가주의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언했다. 사랑의 빛선교회 윤대혁 목사의 폐회기도로 세미나는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관한 이영선 목사는 "오늘의 강의처럼 목회자들이 '복음 중심'의 자리에 확고히 서 있다면 교회는 오늘날 당면

한 여러 문제를 타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참석자들은 "설교자이기 전에 내 안에 나만의 복음이 있는지?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래 전 깨달은 복음으로 쥐어짜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오늘도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며 누리는 자로서, 그 생명이 넘쳐 흐르는 설교를 성도들에게 먹여야 함을 다시 새기게 되었다" 또한 "나의 신학이 탄탄한 복음주의 신학 위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설교 역시 일관성 있게 전달되고 있는가, 성도들에게도 그 사상이 잘 심겨지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미주복음방송 기사 제공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HOLLYWOOD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p>귀국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p>귀국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p>시내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p>타주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p>자동차운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저가 차량 운송 	<p>해외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1-877-580-2424 ☎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 주정부 허가: MTR-190586
samsungmoving@gmail.com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기능성 건강신발
발명 특허 획득
2024. 1.24

통증없이, 가볍하게
걸어보자! 뛰어보자!



건강한 몸을 만드는 **기적의 신발!!**

체험사례

- “허리통증과 왼쪽 골반, 무릎, 종아리가 고질적으로 아파서 너무 고생했는데 이젠 신발 신고 너무 좋아요”
- “왼발을 질질 끄는데 이 신발 신자마자 그냥 걷고 있습니다”
- “스트로크로 2개월간 병원에 있다가 지팡이를 짚고 왔는데 이 신발 신고 지팡이 버리고 갑니다”
- “족저근막염으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엄청 힘든데 이젠 괜찮아요”
- “무지외반증으로 고생하는데 이 신발신고 교정해 발이 편해졌어요”
- “하루종일 서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젠 안 피곤해요”

신발이 발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망가진 발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변형된 발은 신체의 근육과 관절, 골반, 척추 등 기타 통증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5월 가정의 달 구매고객 경품 추첨자 발표

- 1등 1명 JGP트랙킹화는 경품권 #1012
- 2등 2명 JGP일상화는 경품권 #1121, #1196
- 3등 4명 JGP 슬리퍼는 경품권#1675, #1018, #1632, #1670
- 4등 25명 가족로션은 경품권 #1033, #1113, #1126, #1061, #106, #1079, #1613, #1672, #1006, #1006, #1021, #1037, #1057, #1629, #1629, #1078, #1002, #1095, #1094, #1094, #1114, #1066, #1125, #1621, #1621

YouTube **기적신발TV**
www.jgpamerica.com



**예약
접수**



올림픽 갤러리아 상가 연합회 회장 박창우(세종문고)대표(왼쪽)와 JGP 대표 김병석(오른쪽)

신는 순간부터 허리에 강한 힘을 주고 신체 균형을 잡아주면서 신체를 교정합니다.
발을 알고 **신발**을 신으면 더욱 **건강**해 질 수 있습니다.

무료 체험
예약 안내
구입 문의

올림픽 갤러리아 3층
푸드코트 옆

(213)330-6810

3250 W. Olympic Blvd. #304 LA, CA 90006

삶을 예배로, 일터를 선교지로, 씨티교회 10년의 역사

“삶이 예배가 되는 일터교회, 일터선교사를 훈련하는 교회”

LA씨티교회(씨니 김 담임목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삶이 예배가되는 일터교회, 일터선교사를 훈련하는교회”의 사명을 견고히 할 것은 다짐했다.

씨니 김 목사는 “10주년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믿음의 지체들의 헌신과 기도 에 감사드립니다”며“앞으로도 LA씨티교회가 더 큰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예배는 씨니 김 목사의 인도후에 지근욱 장로의 대표기도 에스더 여 선교회의 특송,다니엘 이안수집사의 특송후에 고후 1:4-11 절을 본문으로 이안규 목사(기독교일

보 대표)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묵사는 크리스천

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란의 의미를 돌아보며 많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

별한 섭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고난과 환란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

드시 감절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또 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며 “창립 10주년 맞는LA씨티교회가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견고해지는 믿음의 동체가 되자. 이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자”고 말했다.

이어 폴 김 목사(에바다 선교회 대표)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10주년기념 케이크커팅과 함께 조규배 선교사의 코이노니아 기도후에 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함께 나눴다.

한편, LA 씨티교회는 한인타운 크랜셔와 7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예배는 11시에 드린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833-9090. 조셉 리 기자



지난 6월 2일(주일) LA씨티교회(씨니 김 담임목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교회의 정체성을 되새겼다. 앞 줄 가운데가 씨니 김 목사, 씨니 김 목사 오른쪽이 이안규 목사. ©기독교일보

강태광 목사 출판 감사예배 및 선교음악회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대표)가 본지에 기고했던 행복칼럼을 정리한 신간 『손에 잡히는 크리스천 행복론』 출판 감사예배와 극빈아동지원을 위한 선교음악회가 6월 2일(주일)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중남미 저 개발국의 어린이 교육 선교와 국제 재난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는 강태광 목사는 틈틈이 글을 쓰며 다수의 책을 집필했다.

지금까지 인문학 책들을 발간해 그 수익금으로 어린이 교육 선교를 지원한 저자는 이번 신간의 판매수익금과 선교음악회 티켓 판매금 등의 모든 수익금을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극빈층 장애우 아동을 돕는 기부금으로 보낼 예정이다.

강태광 목사는 “더 나누고 더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앞으로 더 더 끊임없는 섬김과 나눔의 기회를 찾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출판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 공동대표)는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 성경은 자족할 때 행복하고, 나눌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면서 “베를린 나누는 삶에 앞장 서자”고 권면했다.

이날 월드쉐어 USA 후원회장으로 취임한 광견섭 목사(예은장로교회)는 “나누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 같다.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해도 나눌 수 있다”며 “월드쉐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나눠달라”고 말했다.

이날 출판 감사예배는 박세현 목사의 사회로 김영일 목사(더

섬기는교회)가 기도하고 송정명 목사가 설교한 후에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의 축도로 1부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에서 광견섭 목사가 월드쉐어USA 후원회장으로 취임하고 강태광 목사가 기념패를 전달했다. 3부 순서에는 양경선 목사의 사회로 축하와 격려 시간이 이어졌다. 강순영 목사(자마 명예대표)와 최학량 목사(미주한인군목회회장)와 이병구 박사(GMU 박사위원장)가 축사를 전했고, 이재권 회장(대통령기념사업회), 서요한 박사(Imperial University)가 격려사를 전했다.

같은 날 오후 7시에 개최된 선교음악회를 통해서 선교지에 사랑을 나누고 교민과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조셉 리 기자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대표)의 신간 『손에 잡히는 크리스천 행복론』 출판 감사예배 2일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렸다. ©기독교일보

효사랑 코람데오 중창단 창단

지난 6월 1일(토)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가 시니어로 구성된 ‘효사랑 코람데오 중창단’을 창단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남가주에 많은 합창단이 있지만 시니어들로만 구성된 중창단은 효사랑 코람데오 중창단이 처음이다.

효사랑선교회 김영찬 목사는, “중창단은 적은 인원으로 구성이 가능해 이동이 쉽고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공연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창단되었다”고 전했다.

학장 정찬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창단 감사 예배는, 박용일 목사가 기도하고 남승우 목사(부대표)가 시편 147편을 중

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행”이라는 설교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을 찬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중창단이 창단되었다. 왕성한 섬김으로 커뮤니티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설교에 이어 효사랑선교회 이사장 서준석 장로와 주창국 장로, ABC 교육 위원장 유수연 의원이 축사하고 남승우 목사가 축도했다.

2부 순서로 중창단 지휘자 한진영이 단원들을 소개함으로 효사랑 코람데오 중창단의 창단을 알렸다.

김민선 기자



효사랑선교회가 '효사랑 코람데오 중창단'을 창단했다.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a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믿을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애니문 보험과 함께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 링크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촬영한 애니문 보험 그룹의 모델임을 알려드립니다.

아프리카 복음주의 지도자 “영적 성장, 목회자에 의존 말아야”



©Nathan Mullet/ Unsplash.com

아프리카 미전도종족 전도 사역자 오스카 아마에치나(Oscar Amaechina) 목사가 “그리스도인 영적 성장을 목회자에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칼럼을 최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CP)에 게재했다.

오스카 아마에치나 목사는 나이저리아 아부자에 위치한 ‘아프리카미션&복음주의네트워크(Afri-Mission and Evangelism Network, AMEN)’ 회장을 맡고 있다. 아마에치나는 “목사는 교인들을 교육하고 영감을 주기 위해 성경을 전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다”며 “목사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신앙이 어린 신자들이 성장하도록 기르는 것이다. 즉, 목사는 종종 기독교인의 영적 성장을 책임지는 존재로 여겨진다”고 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받는 영적 양식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기독교의 주요 도전 중 하나는 영적인 영양실조”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오는 즉시, 그는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이 나타날 때까지 성장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돌팔이가 가장 많은 직업이 성직자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았다”며 “사업에 실패하거나 세속적인 직장을 잃었을 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모든 주요 도시와 마을의 거리마다 성경에 무지한 사람

들이 세운 교회가 넘쳐난다. 이들이 과연 순진한 기독교인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 의지할 만한 목사들인가?”라고 지적했다. 아마에치나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끔찍한 점은 많은 목사들이 교인들의 영적 성장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그들을 흥분시키며, 부자가 될 것을 약속하며 씨앗을 뿌리도록 격려한다”며 “죄인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책임받지 않으며, 심지어 개종하지 않은 교인들마저 이제 교회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부자들은 교회에 지정 좌석이 있을 정도로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했다.

그는 “모든 기독교인의 영적 성장은 매우 중요하며, 그 사람이 아무리 기쁨 부음을 받았거나, 지식이 많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모든 기독교인은 자신의 영적 성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친밀감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기독교의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을 향해 노력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시작하도록 명령했다(히 6:1-2). 기독교인들이 대중적인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만 의존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는 오직 성령에 대한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강혜진 기자

영 기독교인 10명 중 4명 “남에게 신앙 공개 꺼려져”

영국 기독교인 중 거의 40%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공개하기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밝혀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가 반유대주의 증가와 영국 기독교인들 사이의 자신감 위기 등의 추세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영국의 ‘삶 속의 신앙 영향 연구소’(Institute for the Faith of Faith in Life, IIFL)가 ‘화이트스톤 인사이트’(Whitestone Insight)에 의뢰하여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유대인 응답자 중 38%가 “내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진술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 의견에 동의한 무슬림 응답자는 29%에 불과했다. 제이크 스콧 IIFL 사무총장은 기독교인들이 신앙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조사에 참여한 기독교인의 28%를 반영하는 ‘유일주의’(exclusivist) 기독교인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의지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일주의자는 자신의 종교가 유일하고 참된 신앙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스콧은 기독교인들의 자신감 위기가 ‘문화적 기독교인’(cultural Christians)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적 기독교인은 세례를 받았지만 교회에 자주 가지 않으며, 기독교 신앙에 강한 동질감이 없는 기독교인을 의미한다. 스콧은 “그들은 자신이 진정한 기독교인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신앙에 대한 태도에서 세대별 차이를 드러냈다. 18~24세 영국인 중에서는 직장에서의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0%에 불과했으나, 65세 이상에서는 50%에 달했다. 그러나 젊은 영국인들은 다른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더 열정적이었다. 18~24세 중 72%는 “종교가 삶의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데 비해, 65세 이상은 47%가 동의했다.

종교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36%였으며, 신앙을 가진 영국인들은 55%로 더 높았다. 또한 직장에서의 종교를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42%였으나, 41%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영국에서 여전히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중 62%가 “기독교 유산이 영국 문화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했으며, 응답자의 73%가 “다양한 종교 간에 우정을 쌓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조사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신앙이 부흥할 조짐을 시사했다. 특히 Z세대 응답자들은 다른 세대보다 종교적 참여와 종교 간 상호 작용이 더 높게 나타났다. 18~24세의 상당수는 자신의 신앙이 유일하고 참된 진리라고 믿으며,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더 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영국 성인 2064명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2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데이터는 모든 영국 성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교회 설립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내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 (월-금) 오전 8시
3부예배(사순절)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2세)을 섬기며, 선교를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교차로)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밤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CMC 중교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분당 C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18 수요일새벽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러닝: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신자들과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일기도회 오전 10: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김상현 담임목사

한인필그림교회

2518 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570-1610 (교회), (714)853-4030(담임목사)

주일 오전 10:00 허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세(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양성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길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오렌지카운티 지역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UCE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8: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ncn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주재: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에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창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장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민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보기도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생명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평일학교부부)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희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법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美 Z세대, 인간이 선하다는 생각 받아들일 가능성 낮아”



하이랜드파크 연합감리교회. ©Wikimedia Commons/Highland Park UMC

Z세대는 전통적인 도덕성과 관련된 관점을 거부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미국 성인 중 가장 젊은 그룹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애리조나기독교대학 문화연구소는 최근 2024년 미국 세계관 목록의 새로운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1월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인 2천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는 세대로 분류된 미국 성인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견해를 비교했다. 조지 바나 문화연구소장은 성명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기독교와 무관하다고 일축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들은 성경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지 않다. 우리는 죄인이다. 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왜곡하여 나쁜 선택 뒤에 나쁜 선택을 낳는다.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사람들이 ‘구식’ 또는 ‘어리석다’라고 일축하는 해독제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

연구에서 18세에서 21세 사이 성인으로 정의된 Z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도덕성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와 일치하는 생각을 거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22~40세 응답자를 밀레니얼 세대, 41~59세 성인을 X세대 또는 버스터(Busters), 60~78세 성인을

부머(Boomers), 79세 이상 모든 사람을 노인으로 분류했다.

Z세대 응답자 중 69%는 낙태가 허용 가능한 행동이라고 믿었고, 밀레니얼 세대의 67%가 그 뒤를 바짝 뒤따랐다. 부머 세대(61%)와 버스터 세대(59%)는 “산모나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외의 어떤 이유든 낙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된다”는 데 동의했다.

Z세대의 압도적인 다수(73%)는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이성교와 합의된 성관계를 갖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으며, 밀레니얼 세대의 69%, X세대 응답자의 63%, 부머의 59%가 이에 동의했다.

또한 대부분의 Z세대 응답자(60%)는 밀레니얼 세대의 54%, X세대 성인의 51%, 부모의 48%와 함께 “개인의 최선의 이익이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사소한 결과에 대한 거짓을 말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다. Z세대의 압도적 다수(66%)는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데 동의했다.

미국 성인 가장 어린 인구 중 단 21%만이 성경을 읽고 그들의 차이를 결정하는 지침으로 인정했다. 이에 비해 밀레니얼 세대(29%), X세대(34%), 베이비붐 세대(37%)에서는 도덕성을 결정하는 데 성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이미경 기자

美 트럼프 유죄 판결에 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반응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 5월 30일 성추문 임박을 의혹과 관련한 34개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때 포르노 배우 스톰미 다니엘스(Stormy Daniels)와 스캔들을 막기 위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이 판결에 대한 유명 복음주의자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빌리그레함전도협회와 자선단체인 사마리아포스 대표인 프랭클린 그레함(Franklin Graham)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나라는 기로에 서 있다”며 “오늘 우리가 본 일은 과거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며,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우리의 법률 체계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공화국을 하나님(통치) 아래 모든 이들이 자유와 정의를 누리는 한 국가가 되도록 이끌어주시길 기도하자”고 했다.
- 토니 퍼킨스**
복음주의 보수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의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회장은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리 공화국은 정의가 눈이 멀 때에만 변형하고, 정의가 정치와 권력에 의해 눈이 멀 때는 죽는다. 오늘은 우리 공화국의 슬픈 날”이라고 했다.
- 잭 그레함**
텍사스주 플레이노에 있는 프레스턴 우드교회 잭 그레함(Jack Graham) 담임목사는 자신의 X에 “모두 심호흡을 하고, 뉴욕에서 열린 거짓 재판 이후 미국에 정

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자”고 했다. 이어 “우리 법률 제도의 미래와 헌법을 포함해 너무나 많은 위험이 걸려 있다”고 했다.

4 세인 클레이본
복음주의 공동체에서 나온 대부분의 성명은 트럼프에 대한 지지 또는 그의 혐의에 대한 부정을 나타냈으나, 복음주의 작가 세인 클레이본(Jentezen Franklin)의 반응은 달랐다. 클레이본은 자신의 X에서 “도널드 트럼프라도 구원의 여지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의 삶이 현재 7개의 죄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트럼프가 선택하면 치유와 구원의 길이 있으며, 구원은 회개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회개는 자백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자백은 진리에서 시작된다. 난 누구의 고통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와 책임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클레이본은 “나는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것”이라고 했다.

5. 폴라 화이트
백악관 재직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적 조인자로 일했던 폴라 화이트(Paula White)는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트럼프 대통령을 쫓는 데 무기화된 사법 제도를 직접 목격한 모든 미국인들에게 슬픈 날”이라고 했다. 화이트는 자신의 X에 영적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는 사진을 공유했다. 그녀는 “우리 국민은 11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나의 오랜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 당신과 정의를 옹호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빈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美 젊은 복음주의자들,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감소”



이스라엘 국기. ©Unsplash/ Levi Meir Clancy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미국의 젊은 복음주의자들의 수가 늘면서 이들 중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보는 이들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올해 초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유대인 연구’ 교수인 키릴 엠 부민(Kirill M. Bumin) 박사과 모티 인바리(Motti Inbari) 박사가 공동으로 저술한 2023년 저서 ‘21세기 기독교 시오니즘’(Christian Zion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American Evangelical Opinion on Israel)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젊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3년 동안 50% 이상 감소했다”며 예루살렘포스트(JP)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2018년, 2020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독창적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종교적 신념과 외교 정책 태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이러한 이슈에 대한 세대 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부민 박사와 인바리 박사가 텔아비브대학교 미국연구센터(CSUS)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에는 30세 이하 젊은 복음주의자 중 33.6%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이는 2018년 67.9%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2021년에는 젊은 복음주의자 중 24.3%가 팔레스타인인을 지지한다고 답했는데, 2018년에는 그 비율이 5%에 불과했다.

미국 보스턴대학교 메트로폴리탄칼리지 부학장으로 재직 중인 부민 박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인바리 박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천천년설을 지지하는 목사들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목사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민족적·인종적인 다양성이 덜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부민 박사는 “필로스 프로젝트의 로버트 니콜슨(Robert Nicholson) 목사, 루크 문(Luke Moon) 목사 등 젊은 복음주의의 공동체 지도자들과의 대화와 기타 일화적인 증거를 통해, 우리는 인종적으로 더 크고 다양하게 결합된 목사들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믿게 됐다. 이들이 천천년설을 지지하는 목회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다는 사실은, 30세 이하 복음주의자들 중 더 많은 이들을 교회와 해당 종말론에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러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 30세 이하 복음주의자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면서, 인구통계학자들은 재림과 구원을 위한 촉매제로서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역할에 대해 점점 더 적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명시적인 종말론적 관련성이 없으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유대 민족에 대한 지원과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주변 관심사의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어 “후천년설은 사회적 활동을 통한 인간 환경의 개선 등 사회 정의를 강조한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현재 미국의 정치 환경에서 친이스라엘이 아닌 친팔레스타인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한난 전 천천년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묘사된 환난이 교회가 휴거된 후에 일어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과 함께 재림하실 것이고,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교회는 천 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견해는 팀 라헤이(Tim LaHaye), 제리 B. 젠킨스(Jerry B. Jenkins)의 베스트셀러 ‘휴거의 시작’(Left Behind) 시리즈에서 대중화됐다. 대조적으로, 환난 후 천천년주의자들은 재림이 환난 후에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에 천년왕국,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중간 환난 천천년주의자들은 교회가 환난 중간에 휴거돼 그 피해를 면할 것으로 믿는다.

후천년설은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기독교인이 지구상에서 오랫동안 지배한 이후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친다. 반면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것으로 기독교인들은 1세기부터 종말에 있었다고 가르친다. 무천년설은 또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CP 편집장이자 서던복음주의신학교(Southern Evangelical Seminary) 명예총장인 리처드 랜드(Richard Land) 박사는 “이스라엘에 대한 젊은 복음주의 지원이 쇠퇴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대학의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랜드 박사는 “우선 이러한 변화는 불행하게도 사실이다. 난 그것을 항상 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지난 20년 동안 젊은 복음주의자들이 대학에 다녔고, 상당수의 대학이 아랍의 오일머니에 의해 전복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유진 기자

스코틀랜드, 지난해 낙태 사상 최다 18,207건

지난해 스코틀랜드의 낙태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모든 낙태 시술 전 ‘직접’ 상담을 긴급히 재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스코틀랜드 공중보건국이 발표한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낙태는 18,207건으로 전년 대비 9.63% 증가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이후 15세 이하 소녀의 낙태는 29.2%, 임신 21주 이후의 후기 낙태는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낙태의 3분의 1 이상(39.92%)이 반복 낙태였다.

장애아의 낙태 건수는 2022년 274명에서 2023년 285명으로 4% 증가했으며, 그 중 다운증후군은 49명이었다.

영국 생명권(Right to Life UK)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팬데믹 기간 온라인 상담 후 두 가지 낙태약을 집에서 복용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생명권의 캐서린 로빈슨(Catherine Robinson) 대변인은 “자가 낙태가 여성의 건강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며 “지난해 스코틀랜드에서 낙태로 사상 최다인 18,207명의 목숨을 잃은 것은 큰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직접 방문 예약을 재개하면 여성을 보호하고, 법적 한도인 임신 10주를 훨씬 초과하는 32~34주에 재택으로 낙태용 알약을 구매해 낙태한 칼라 포스터(Carla Foster)의 사례와 같은 비극을 예방할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전망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구경모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침례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가톨릭) 오후 8:3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19648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고태형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광일(월-금) 06: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김지성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 12:30 EM 오후 12:30 사랑부 오전 11: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김정진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초등부 오전 11:00

종교대학(가톨릭) 오전 11:00 영어부예배(만용체)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Youth 금요일(월) 오후 7:30

나성복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사랑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11:15AM 주일 3부 11:15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중고등부 9:30AM/11:15AM 수요일기도회 7:30PM 새벽기도회 월-토 5:30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8628 www.churcheveryday.org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com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만용체)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 오전 9:00 EM예배 (2부) 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월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일(만용체)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OC예배 오후 7:30 수요일침례 오후 7:30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ol.org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6: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베이커스필드 ANC 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주일예배(화-토) 새벽 6: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례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7:00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정공필 담임목사

주일날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이병철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영어 동시통역) 화요일침례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박은호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ojeounchurch.com

임명진 담임목사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수능
·아시아미용기술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밥, 오방떡, 솔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혈액순환 개선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함유 \$8.80
D3 5000 IU 선사한 비타민 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함유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결합,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건강 증진 기능성 신발 브랜드인 JGP는 지난 6월 4일(화) 2시 올림픽 갤러리아 매장에서 가정의달 맞이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했다. 올림픽 갤러리아 상가 연합회 회장 박창우(세종문고 대표)가 경품 추첨을 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기쁨이 두배” JGP 경품 추첨 이벤트

JGP에서는 5월 가정의 달 구매 고객 감사 추첨 이벤트를 했다. 2024년 4월 29일 ~ 5월 31일 기간 내 JGP신발을 올림픽 갤러리아 매장에서 선물을 위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6월 4일 오후 2시에 경품 추첨을 했다. 추첨은 올림픽 갤러리아 상가 연합회 회장 박창우(세종문고)대표가 했다.

추첨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등 (1명, JGP 트랙킹화): #1012	#1125 #1621 #1621
2등 (2명, JGP 일상화): #1121 #1196	JGP는 발의 정확한 균형을 맞추고 몸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의학, 공학적으로 설계된 건강증진 기능성 신발로 일반 운동화부터 정장화, 캐주얼화, 트레킹화, 골프화, 샌들, 슬리퍼 등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고 있다. 전시 판매장은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있다.
3등 (4명, JGP 슬리퍼): #1675 #1018 #1632 #1670	김민선 기자
4등 (25명, 가족로션) #1033 #1113 #1126 #1061 #1061 #1079 #1613 #1672 #1006 #1006 #1021 #1037 #1057 #1629 #1629 #1078 #1002 #1095 #1094 #1094 #1114 #1066	

한국 감리교회의 UMC 교류 단절 논의 美 외신 보도

“이것은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이다. 동성애는 분명한 죄악이며 생명의 신성에 관한 문제”

미국 연합감리교회(UMC)가 지난 4월 총회에서 동성애 성직자 안수를 허용함에 따라 한국과 미주 한인 감리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반동이 엇갈리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한국 감리교회 내에서 UMC와의 단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감리교성결운동협의회(MHMC), 감리교회재건운동(MRMC),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WHMH) 등 한국기독교성결운동(KCHM) 내에서 이를 지지하는 의견이 늘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UMC 총회 후 발표된 성명에서 이들은 “동성애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이다. 동성애는 분명한 죄악”이라며 “이것은 교회가 타협 없이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생명의 신성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 감리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연합감리교회와 계속 교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한 이들이 한국 감리교회가 행정 절차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감리교회는 내외부적으로 연합감리교회와 비슷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CDI는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가 인천 송의감리교회에서 ‘UMC 위기에 대응하는 긴급 세미나 및 회의’를 개최했으며, 김낙인 목사(남가주 주님의교회 원로)가 UMC 내의 친동성애 경향에 대해 강의했다고 전했다.

한미 연합감리교회 연회(Korean-American UMC Conference) 목회자들도 UMC 총회의 최근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과 한국의 다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UMC에는 약 220개의 한인 교회가 있으며, 약 800명의 한인 목사와 약 3만여 명의 한인 교인이 속해 있다.

반면, UMC 연회에 소속된 한인 목사는 교단 내 대다수의 한인 목사들이 한국에서 공부했거나, 한국에서 안수를 받은 후 UMC에 합류했다면서, 2015년 이후 미국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 금지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UMC 총회의 최근 동성애 관련 결정은 동성애를 조장하

거나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금지하는 차별적 언어를 제거한 것”이라며 “이 조항을 삭제해서 성적 지향을 묻는 일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동성애자 목사가 늘거나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교회는 우리가 유지해온 전통 신앙을 확실히 지키고 교회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법안이 UMC 내에서 통과되었다”고 덧붙였다.

UMC는 4월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거부하고, 동성결혼이나 관련 예식 주회를 개별 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한미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혼란과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한다. 이는 교회를 위협하고 분열시킬 수 있다”며 “이번 UMC 총회 결정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UMC는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이 기간 동안 UMC 대의원들은 동성결혼이나 예식을 주례한 성직자에게 내리는 1년 이상의 무급 휴직 처벌 조항과, 동성애 성직자 안수 금지 규칙 등을 모두 폐지했다. 김유진 기자

단신

LA 사랑의교회 여성 회복 세미나
LA 사랑의교회 가정사역원에서는 6월 15일(토) 오전 10시에 Accompany Worldwide 여성 회복 공동체와 함께 “이혼과 폭력 트라우마 회복 및 필요한 법적 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니 박 (풀러신학교 상담학 교수), 김선희(한미 가정상담소 가정폭력 디렉터), 테리 임 (이혼 전문 변호사)이 강사로 선다.

일시: 6월 15일(토) 오전10시~오후 3시 @ 2층 은혜채플(점심제공, 교회 및 예멘자동차 주차장 이용)

문의: 최 티파니 집사 213-505-7719/김민기 목사 714-497-7065

LA 사랑의교회 썸머 스쿨
LA 사랑의교회는 TK-6학년 까지 LA사랑아카데미 썸머스쿨 등록을 받는다.

개강은 6월 10일(월)이며, 성경, 기독교세계관, 역사, 한글, 한국어사, 영어, 수학 및 특별활동(송체호 탁구교실/기타/농구/산타/미술/바이올린/키보드/우쿨렐레/선착순 선택)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등록: www.Mysarang.com
문의: 최영미 원장 323-652-0999/ mysarang213@gmail.com

은혜 커뮤니티 건강검진
은혜한인교회 의료 선교국은

8일(토)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비전센터 로비에서 연례 은혜 커뮤니티 건강검진 축제를 연다.

대상은 은혜교인 및 커뮤니티 거주자 누구나 해당되며, 일반종합 혈액검사, 각종 암수치 검사, 3달 평균혈당, 헬리코박터균, 갑상선, Vitamin D 검사, 간염검사, 소변검사, 자궁경부암 등을 제공.

문의: 김영수 장로 714.417.2001, 김범 집사 559.392.3118

The Bridge 찬양간증 집회
The Bridge와 함께 하는 찬양 간증집회가 6월 12일(수) 오후 7:30에 충현선교교회에서 개최된다.
주디 한 기자

현대 신학 단상

신학계의 거성 위르겐 몰트만 교수님 소천하시다!

20세기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신학계의 거성이셨던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 교수님이 2024년 6월 3일 튀빙엔(Tübingen)에서 소천하셨다. 한때 독일 개신교회의 총회장이었던 하인리히 베펜포드-슈트롬(Heinrich Bedford-Strohm) 목사님에 의하면, 몰트만 교수는 “세계 교회의 위대한 스승”이었다. 마음속 깊은 슬픔과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앞으로도 세계 신학계에 그분을 능가하는 학자가 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1926년 4월 8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신 몰트만 교수는 1943년 17세 때 독일 공군에 강제 징집되어 복무하다가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 영국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포로수용소에서 성서를 접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한 그는, 석방 후에 부퍼탈(Wuppertal) 신학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계속하여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독일 북부 브레멘(Bremen)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부퍼탈 신학대학의 교리사 교수로 초빙되었다. 1963년 본(Bonn) 대학 교수로 초빙되어 봉직하시다가 1967년 튀빙엔(Tübingen)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로 초빙되었다. 미

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기다림과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하며, 이 희망의 빛 속에서 성서를 읽고 해석해야 한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곧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자신의 인격과 생활 속에서 체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우리의 말은 거짓말이 된다는 것을 나는 몰트만 교수님에게서 배웠다.

내가 체험한 몰트만 교수님은 참으로 인간적인 분이였다. 1971년 본인이 튀빙엔 대학에 공부하러 갔던 당시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 속했다. 한국 유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독일 교수는 거의 없었다. 유명한 판넨베르크(W. Pannenberg), 윙겔(E. Jüngel) 교수는 세상 떠나기까지 한국 유학생 중 한 명도 박사학위 후보자로 받아주지 않았다. 몰트만 교수님은 예외였다. 그는 나를 박사학위 후보자로 받아주심은 물론, 내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딸 마리아(Maria Wildermuth)의 결혼 주례를 맡아 주셨다. 1977년 본인이 연세대학교 교수로 초빙되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는 “난방비”(Heizkosten) 보태 쓰라고 두 번

연합군의 폭격으로 친구를 잃은 몰트만 파멸과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희망의 빛 발견

국 여러 대학으로부터 교수 초빙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시고 계속 튀빙엔 대학에 계시다가 1994년에 은퇴하셨다.

몰트만 교수님의 신학은 한 마디로 “희망의 신학”이라 말할 수 있다. 함부르크 도시 전체가 연합군의 폭격으로 불바다가 되고, 자기 곁에 있던 친구가 파편에 맞아 온몸이 찢기는 참화를 보았던 그는, 파멸과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기다리고 희망하는 성서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를 그의 신학의 초석으로 삼았다.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가가 있는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세계 신학계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카를 바르트(Karl Barth)의 문헌을 넘어서는 그의 수많은 저서들이 한국을 위시한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번역되었다. 어떤 저서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번역, 출판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이 그의 신학에 관한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였다.

에 걸쳐 수십만 원의 돈을 보내주시기도 하였다. 내가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끝까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어가셨다. 나의 뒤를 이어 김명용, 이신건, 유석성, 곽해원, 이성희, 김도훈 등, 여러 한국 학생들이 박사학위를 얻도록 지도하셨다. 2021년부터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한국신학아카데미(전 해암신학연구소)의 명예자문교수가 되어주시기도 하셨다.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

몰트만 교수님의 소천을 맞이하여 이런 생각을 해본다. 몰트만 교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본인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희망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일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인격이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모습(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일이다! 몰트만 교수님의 이같은 가르침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소천을 애도하는 몰트만 교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김군진 원장(한국신학아카데미)

몰트만 교수님의 기본 사상은 나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우리는 어떤 난관

말씀과 사색

약해지기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C. S. 루이스는 그의 책 [네 가지 사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 to be vulnerable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리입니다. 약해지는 것이 싫다고 사랑을 안 하기로 했다면 당장 걱정할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는 아주 이상한 동물로 변해갈 것입니다.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신경 쓰이는 것이 싫어서 아들을 사랑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렇게 자기 맘을 맘대로 할 수도 없겠지만) 아들로 인해 나의 에너지와 정력이 소모되지 않아서 좋을 것 같지만, 이내 무정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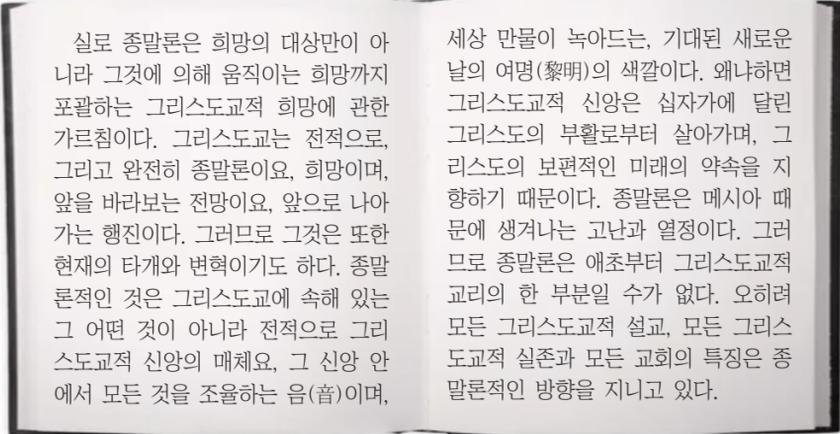
루이스의 말대로 아무도, 그 무엇도 견드릴 수 없는 이기심이라 부르는 관속의 ‘자기 소견에 옳은 데로 사는 마음’을 집어넣고 살면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며 ‘회복이 불가능한 irredeemable’ 아주 ‘이상한 사람 impenetrable’으로 변질되어 갈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관속의 사람이 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하는 비정하고 사랑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은 본질의 회복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사랑을 이겨 먹기 위해 벽을 치고 사는 여리고 성 같은 사람을 봅니다. 숨도 쉴 수 없는 지옥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눈 한번 마주치지 않고 딱딱히 굳어 버린 비정의 얼굴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 식어 버린 마음에 인사도 부담스러운 관계가 된다면 약해지는 복음의 원리를 망각하고 스스로 무덤 같은 여리고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라함이 무덤 같던 여리고 성의 창문을 열었듯이, 지옥 같은 우리 맘의 창문을 엽시다. 그 창문을 열고, 예수님의 붉은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내리게 하십시오. 차가운 마음에 훈훈한 온기가 돌 것입니다. 약해질 것입니다. 열길 제쳐 놓고 아픈 아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약한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을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먼 발치에 보던 연세든 아버지가 체면 불구하고 아들에게 뛰어 가 안고 뽀뽀하고 기뻐하듯이, 아들 때문에 약함을 경험하는 아버지 마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검 같은 여리고 성은 허물어져야 합니다. 회개하는 눈물로 성을 내려놓읍시다. 사랑하는 맘이 녹아 내리면 마음의 철벽 성은 무너집니다. 사랑하면 약해지지만, 여리고 성은 무너지는 믿음의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실로 종말론은 희망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움직이는 희망까지 포괄하는 그리스도교적 희망에 관한 가르침이다. 그리스도교는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종말론이요, 희망이며, 앞을 바라보는 전망이요, 앞으로 나아가는 행진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현재의 타개와 변혁이기도 하다. 종말론적인 것은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매체요, 그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는 음(音)이며,

세상 만물이 녹아드는, 기대된 새로운 날의 여명(黎明)의 색깔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적 신앙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미래의 약속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종말론은 메시아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과 열정이다. 그러므로 종말론은 애초부터 그리스도교적 교리의 한 부분일 수가 없다.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교적 설교, 모든 그리스도교적 실존과 모든 교회의 특징은 종말론적인 방향을 지니고 있다.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또 쉽게 돌취며 살았다는 건, 그 노동하고 찬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혹사 당하는 눈!”

너무 많은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 **연령, 안구상태(안구건조증), 생활**
(눈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합니다)



01
눈 건강
눈건강 루테인지아잔틴
\$17.90 ▶ **\$14.90**

50대 이상 : 노화로 인한 눈 건강문제(황반변성)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을 차단해 망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02
눈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40~50대: 눈 보호와 함께 과한 업무로 누적된 '간'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분들께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간에 좋은 밀크씨슬이 함유된 '루테인 밀크씨슬'을 추천합니다.



03
눈 건강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18.90 ▶ **\$15.90**

20~30대 직장인: 직장업무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많고 눈이 혹사되어 피곤한데도 눈이 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E가 함유된 영양제가 좋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01
간 건강
간건강 가득 밀크씨슬
\$14.90 ▶ **\$11.90**



02
간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03
간 건강
CMG 간N 밀크씨슬
\$27.90 ▶ **\$23.90**



04
간 건강
간에는 밀크씨슬
\$21.90 ▶ **\$18.90**



05
위 건강
위건강
\$18.90 ▶ **\$15.90**



06
신경을 위한 건강제
신경엔 마그네슘
\$19.90 ▶ **\$16.90**



07
항산화엔 비타민 D
비타민D 4000IU
\$13.90 ▶ **\$11.90**



08
항산화엔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D 가득
\$15.90 ▶ **\$12.90**



09
항산화엔 비타민 D
CMG 항산화 비타민 D
\$18.90 ▶ **\$15.90**



10
피부 보습
수분가득 히알루론산
\$19.90 ▶ **\$15.90**



11
관절 건강
CMG 프리미엄 보스웰리아
\$17.90 ▶ **\$14.90**



12
홍삼 10ml x30
한국 홍삼 퓨어 데일리 스틱
\$100.00 ▶ **\$89.00**



J1 MART
Healthy Life

판매처
PRO-Z USA, Inc
T.(213)278-3250



SCAN ME

기독교 시각으로 바라보기

아동보호법 상정 실패는 새로운 운동의 시발점



민종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원로
KCMUSA이사장

소련 공산주의의 붕괴로 마르크스주의가 종료되었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것입니다. 현재의 탐욕적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쇠퇴 이후의 유일한 사회·경제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선부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낳은 국내경제의 양극화와 국제사회에서 자원의 불균등 분배를 우리가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공산주의의 모순, 그리고 평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서방국가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라는 신좌파 운동의 시작은 이제 벌써 5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말의 프랑스의 68혁명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발흥으로 70-80년대를 풍미하던 신좌파 운동이 현재에는 미국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신좌파 운동이 상당한 성취를 보여주는 문화전쟁의 중심지로 보입니다. 사회비평과 문화적 변혁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항하려고 했던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의 이론이 사회, 교육, 심지어는 성 정체성의 정치를 통해서 활황을 누리는 장소가 바로 여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의 문화와 정치를 지배하는 동성애 운동, LGBTQ+ 문제는 단순한 유행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뿌리를 가진 세계관 운동의 일환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운동은 전통적인 권위를 대표하는 "국가, 교회와 가정"을 "압제적"(oppressive)이라 인식합니다. 특히 성적인 면에서의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이라는 기독교적 가치관의 표현을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이해합니다. 문화적 자유를 위하여 이들은 전통을 답습하는 "미메시스"가 아니라 사회적 변동을 창조, 곧 "포에시스"하기 위해, 기존의 권위를 해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화적 전쟁 속에서 결혼, 독신, 성적 순결이라는 오랜 성 윤리는 어리석고 고답적인 속박이라고 생각하며, 사랑을 위한 자유의 추구를 주장합니다. 일부일처제는 역겨운 제도이며, 결혼제도는 인간 본능과 충돌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간주합니다. 여기에 성적 해방을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허버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자유로운 성, 결혼 반대, 낙태의 자유와 권리, 생물학적, 생리적 성(sex)을 넘어서는 사회적 성(gender)의 선택, 그리고 외설적인 표현의 자유와 성애(性愛)를 인생의 핵심적 가치로 삼는 성 혁명의 이론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운동의 더욱 심화된 기반에는 유토피론적 세계관을 제공한 헤겔 좌파와 마르크스, 신적 토대 없이 사유를 시작해야 한다는 무신론의 프리드리히 니체, 그리고 생물학은 하나님과 성경

의 개입을 거부한다는 진화론의 대부 찰스 다윈이 있습니다.

1월부터 지난 수개월에 걸쳐 한인 교계는 전통적 가정의 보호를 위한 활발한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만, 한인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모두 힘을 모은 서명운동은 우리의 귀한 경험입니다.

아동보호법 주민발의안 청원서(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가 11월 선거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그동안 참여하신 여러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 "아동보호법 주민발의안 청원서 서명운동본부"의 봉사자, 이 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한 "다음세대가치관정립단체"(TVNEXT), 그리고 교계의 여러 기관이 미래의 성취를 위한 협력과 연대활동을 감당 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성 혁명의 중심지가 된 이곳에서 우리 자손을 지켜내는 일이 지속적 사역의 하나가 되어야 함과 주류사회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유익한 계기였습니다. 세계관 전쟁을 위한 연대활동의 징검다리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선교지에서

태국에서 (1)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저희 내외는 지금 현재, 태국 선교지 핏사눌룩에 와 있습니다. 핏사눌룩은 태국 수도인 방콕에서 북쪽으로 233마일 떨어진 핏사눌룩 주(州), 우리나라로 치면 도(道)에 속한 핏사눌룩 시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중수도이지만, 태국 수도 방콕처럼, 빌딩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농지가 대부분인 지역입니다. 중심가로 가면, 코스코와 같은 대형마켓이 있기는 하지만, 마치, 3-4층 상가 건물이 즐비한 1980년대의 한국을 연상케 합니다. 날씨는 5월 말 현재, 화씨 90도 내외이며,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120도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마치 사우나의 한증막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내외가 핏사눌룩에 도착하기 바로 전날,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져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시원해졌다고 선교사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회를 하시다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아 10여 년 전에 핏사눌룩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역을 시작하신지 3년이 될 무렵, 사랑하는 둘째 딸을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큰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 내외분은 따님을 태국 땅에 묻고, 하나님께서 태국을 품으라는 뜻으로 여기고, 태국 선교에 더욱 헌신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태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교회개척을 하셨습니다. 교회 이름은 그 지역 이름이 인도차이나 인터섹션이라, 인도차이나 교회, 태국에서 중국을 진으로 불러, 인도진 교회로 이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태국 선교는 대학생 선교 혹은 대부분 산에 모여 사는 산족(山族)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산족들은 주로 모여 살고, 마음이 열려 있는 편이라, 전도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동남아 나라들 중, 경제적 상황이 좋고, 불교와 무속 신앙이 뿌리 깊은 태국 현지인을 전도하는 일은 극히 어려운 일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개척하셨고, 아직 유망하지 않은 태국 언어 실력으로 개척하자마자 거리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 아이들을 전도하라는 음성을 듣고, 아이들을 모집하여, 영어 공부반을 열고, 아이들에게 영어와 기타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인 아이들

이 10명, 그리고 아이들과 친밀해지자, 주일날 예배가 있으니, 오지 않겠느냐고 권면했더니, 16명이 아이들이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20살 정도의 한 청년을 어떤 기독교 집회 모임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청년은 이미 여러 해 전, 누군가의 전도로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던 북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북은 사역을 하거나 전도를 할 정도로 신앙이 깊은 청년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북을 사역자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나, 계속된 성령의 감동으로 결국 북에게 전화를 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 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북이 예상외로 진지하게 받아들여더니, 어머니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선교사님께서는 북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북을 사역자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감동을 주셨는데, 북이 사역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북의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받던 중 울음을 터트리며, 북이 하나님께서 쓰임 받으려 기도해오던 중,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감동을 받았는데, 선교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전화를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은 그때부터, 전도사가 되어, 선교사님과 함께 노방전도를 하며, 예배와 성경공부를 인도

하였고, 마침내 신앙과 성실함을 검증 받아,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꾸준히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교회개척은 불과 7년 만에 아이들과 어른을 합쳐, 60-70명이 모이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이 때에 제자양육을 받아,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된, 한 자매가 간사가 되어, 어린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며, 화요일, 수요일은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모여, 한시간 큐티 나눔, 한시간 통성기도를 한 뒤, 가가호호 방문 전도와 거리전도를 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전도자 각각이 전도한 가정에 방문하여, 양육훈련을 하고, 토요일은 교인들을 매주 심방을 하십니다.

어제, 전도, 심방, 기도 모임에 참여한 저희 내외는 뜨겁게 통성기도를 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태국 현지인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이곳 핏사눌룩에 단기선교를 다녀간 감사한인교회 EM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사님과 차이나진 교회의 사역에 대해 설명해주신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진 교회는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심장을 가진 진실한 선교사님 내외 분을 만나 후원하게 된 것이 감사했고, 선교지 현지 교회의 뜨거움과 예배와 기도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의 모습에 도전 받을 수 있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202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은환 박사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학부: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D.Miss)과정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가는 Re-Vital Online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서울 메디칼 그룹 주치의



- | | | | | | | | |
|-------------------------|-----------------------|---------------------------|--------------------------|-----------------------|----------------------|------------------------|-------------------------------|
|
한경모
Kyung Mo Han |
조지 인
George In |
백상현
Sang Hyun Baik |
이영직
Young-jik Lee |
이선우
Sonwoo Lee |
강두만
Deno Kang |
강훈구
Hun Ku Kang |
다이아나 김
Diana Maria Kim |
|-------------------------|-----------------------|---------------------------|--------------------------|-----------------------|----------------------|------------------------|-------------------------------|

- | | | | | | | | | |
|-----------------------|--------------------------|--------------------------|---------------------------|---------------------|-------------------------|----------------------|-------------------------|---------------------------|
|
카렌 김
Karen Kim |
김경애
Kyoung Ae Kim |
김성현
Sung Hyun Kim |
김승현
Seung Hyun Kim |
김영진
Evan Kim |
김일영
Il Young Kim |
김정환
Peter Kim |
스티브 박
Steve Park |
손향은
Hyang Eun Sohn |
|-----------------------|--------------------------|--------------------------|---------------------------|---------------------|-------------------------|----------------------|-------------------------|---------------------------|

- | | | | | | | | | |
|-------------------------|--------------------------|------------------------|-----------------------|-------------------------|----------------------|-------------------------|---------------------------|-------------------------|
|
송명재
Mark M. Song |
신동원
Dong Won Shin |
로리 안
Lauri I An |
안승록
Seung R An |
윤은주
Eun Joo Yoon |
잔 음
John Ehum |
이용태
Yong Tai Lee |
임대순
Dae Soon Rheem |
임영빈
Justin Rheem |
|-------------------------|--------------------------|------------------------|-----------------------|-------------------------|----------------------|-------------------------|---------------------------|-------------------------|

- | | | | | | | | | |
|--------------------------|--------------------------|---------------------|--------------------------|---------------------|-----------------------|-------------------------|----------------------|-------------------------|
|
임대순
Dae Soon Leem |
정만길
James J. Jung |
정준
Jun Chung |
정희수
Hee Soo Jeong |
조아라
Ahra Cho |
주우진
Woojin Joo |
프랭크 최
Frank Choe |
허남형
Brian Huh |
최순아
Soon Ah Choi |
|--------------------------|--------------------------|---------------------|--------------------------|---------------------|-----------------------|-------------------------|----------------------|-------------------------|



- | | | | | | | | |
|-------------------------|--------------------------|-------------------------|---------------------|-------------------------|-------------------------|-------------------------|---------------------------|
|
김홍식
Hong Sik Kim |
폴 장
Paul S. Chang |
하태준
Robert T. Ha |
잔 김
John Kim |
홍훈기
Hoon Gi Hong |
김방선
Bang Sun Kim |
송채원
Chaewon Song |
강수웅
Soo Woong Kang |
|-------------------------|--------------------------|-------------------------|---------------------|-------------------------|-------------------------|-------------------------|---------------------------|

- | | | | | | | | | |
|---------------------------|--------------------------|------------------------|------------------------|-------------------------|--------------------------|-------------------------|--------------------------|-------------------------|
|
김대중
Dae-choong Kim |
김성현
Sung Hyun Kim |
김종진
Jongjin Kim |
김진세
Chin Se Kim |
박재만
Jae Man Park |
방재훈
Jason J. Pang |
송명재
Mark M. Song |
신창은
Chris C. Shin |
안규동
Kyu Dong Ahn |
|---------------------------|--------------------------|------------------------|------------------------|-------------------------|--------------------------|-------------------------|--------------------------|-------------------------|

- | | | | | | | | |
|-------------------------|-----------------------|------------------------|------------------------|----------------------|---------------------------|------------------------|-----------------------------|
|
안우성
Woo Sung Ahn |
오문목
Moon M. Oh |
이광혁
John K. Lee |
이용호
Yong Ho Lee |
이효구
Joseph Yi |
알버트 장
Albert Chang |
최원배
Wonbae Choe |
리차드 한
Richard S. Han |
|-------------------------|-----------------------|------------------------|------------------------|----------------------|---------------------------|------------------------|-----------------------------|



- | | | |
|-------------------------|-------------------------|-----------------------|
|
석태영
Larry T. Suk |
임영빈
Justin Rheem |
김학준
Philip Kim |
|-------------------------|-------------------------|-----------------------|



- | | | | |
|--------------------------|----------------------|-------------------------|--------------------------|
|
장국일
Kook Il Chang |
리사 김
Lisa Kim |
박성수
Richard Park |
유경수
Kyung Soo Yoo |
|--------------------------|----------------------|-------------------------|--------------------------|



- | | | | |
|--------------------------|--------------------------|------------------------|------------------------|
|
백성렬
Jason S. Paek |
변상준
Sangjun Byeon |
오희용
Hee Yong Oh |
신예용
Yeyong Shin |
|--------------------------|--------------------------|------------------------|------------------------|

한인 의료진이 가장 많은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서울 메디칼 그룹이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봐드립니다.



520 S Virgil Ave #107, Los Angeles, CA 90020 (전화) 213-389-0077 / 800-611-9862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이제는 성령론을 바르게 정립할 때

성령신학, 성경적으로 건전하게 정립하다



삼위일체론적 성령신학

유태화 | 아바서원 | 476쪽 | 30,000원

저자가 지켜본 1980년대 말 신학대원 학생 시절에 지켜보았던 신학 논쟁에서 시작된 책이다. 당시 신학교와 교회 내에서 성령세례에 관한 신학적인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오순절 신학 진영과 개혁파 신학 진영 간의 논쟁, 그리고 개혁파 신학 내에서도 논쟁이 첨예하였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런데 중생 이후의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세례를 별개의 사건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성령세례를 받았다는 표적으로 뒤따르는 방언이 논쟁의 한 축이었다.

삼위일체론은 교회사 초기부터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반복된 논쟁은 결국 싸움에서 진 상대방을 이단으로 축출하기에 이르렀고, 다른 측면에서 이는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론을 자연스럽게 정립해 가는 과정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정립된 삼위일체론은 성경을 진지하게 믿는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수용하는 건전한 교리가 됐다. 초기 기독교가 기독교론 때문에 삼위일체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면, 비교적 최근 교회가 겪고 있는 교리적-실천적 문제는 성령론 때문이다. 성령에 관한 가르침 자체가 너무 빈약한 것도 문제이지만, 목회 현장에서 성령님은 하나의 에너지나 기운, 힘과 같이 비인격적 대상으로 멸시당하고 있다.

오순절주의 영향을 받은 교회에서 성령님은 신자가 언제든지 동원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처럼 이용된다. 정통 삼위일체론을 지지하면서도, 성령신학은 영망진장일 수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지금의 기독교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유태화 박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삼위일체론적 성령론'이라는 논문을 썼다. 당시에도 성령론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 결실로 2024년 아바서원을 통해 이 책 <삼위일체론적 성령신학>을 출간하게 됐다. 그는 2003년부터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 나라와 광장신학>이란 책을 2022년 낸 적이 있다(아바서원, 2022).

개인적 바람으로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성도 모두가 성령께서 친히 성경으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이 책을 통해 진지하게 연구하고 알아가기를 바라지만, 솔직히 그렇게까지 읽기 쉬운 책은 아니다. 또 대부분의 성도는 교의적인 면(실천적인 면)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분명 그 부분을 세심하게 터치하고 또 분

명한 결론을 제시하지만, 성경적 교리를 충분히 쌓고 나서야 적용점을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모두에게 충분히 읽을 가치를 제공한다. 먼저 성령론을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 다루기보다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단순히 성령 하나님에 관한 오해를 불식하고 올바른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저자는 1부에서 성령에 관한 이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요약하는데, 이는 삼위일체론적 성령신학이 최근 만들어진 신학 이론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초창기부터 정립해 온 정통 교리의 맥을 잇는다는 점에서 주는 의미가 크다. 둘째로, 저자는 성령론적 기독교론과 기독교론적 성령론을 배타적으로 다루지 않고, 20세기 전반적인 흐름에 맞춰 상호 보완의 관계로 다룬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기초로 성령에 대해 설명하거나 반대로 성령을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통합한다는 말이다(2부). 전반적으로 저자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가지고 있던 관점과 유사한, 성령께서 일으키는 부흥의 요소를 인정하지만 신자가 성령을 이용하여 주체적으로 일으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저자는 오늘날 특별한 사도를 일으켜 온갖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을 일으키는 현상을 경계하지만, 거듭난 신자라면 누구나 성령께서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 둔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성령님은 언제든지 불러내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신비로운 일을 행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조종 대상이다.

저자의 교의적 연구 결과를 반영한다면 그런 일은 성경적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당장 멈춰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미건조하고 아무



©픽사베이

것도 바라거나 기대할 수 없는 신앙을 고수하라는 것이 아니다.

“회중 가운데 설교자를 세우고, 회중의 영육 간의 필요를 살피는 장로를 세우며, 회중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집사를 세움으로써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를 살피고 양육하시기 때문이다. 특별히 성령께서 설교를 사용하여 회중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소환함으로써 기억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새로운 헌신으로 돌려놓는 일을 감행하여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존 맥아더 목사는 <다른 불>이란 제목의 콘퍼런스 와 그 결과물인 책을 통해, 오늘날 가장 모욕당하

시는 하나님의 위격이 성령 하나님 이시라고 고발했다. 2014년 출간된 책이지만, 그 고발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도 일상에서 매주 예배당에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오해와 오용은 반복해서 발생한다. 이것을 바로 잡는 일은 교리적이고 실천적인 면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 성경적으로 성령신학을 건전하게 정립한 책이 있다. 이 책은 교의적인 측면에서도 유익한 교훈을 제시한다. 이 책을 진지하게 읽어보라.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라.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베드로 전서 2:20 하



If you suffer for doing good and you endure it, this is commendable before God.
| PETER 2:20

출가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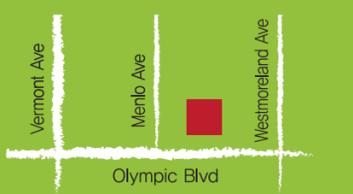


에스더 이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디즈니+ <삼식이 삼촌> (2)

고도성장기 향한 허망한 향수... 한국교회 향한 경고



1950년대, 풍운의 시대에 활약했던 야심만만한 정치강패의 일화를 다룬 드라마, <삼식이 삼촌>.

사회와 교회 양적 성장 치우쳐 <삼식이 삼촌>, 낫두리 콘텐츠 교회, 변영신학 붙들지 말아야 삶과 신앙 인식, 근본 바꿀 때

◆성장경제 시대의 열망: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고도성장기

<삼식이 삼촌>의 시대 배경은 1950년대 중후반이다. 이 시기는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기에 접어들기 직전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 소비경제, 수입의존 경제구축 요구를 거절하고 자립적 산업생산 역량을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때였다. 이승만 정부는 1958년 4월부터 산업개발위원회를 통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960년 4월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흔히 한국 경제개발 계획의 시작이라고 하면 1962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직후 개시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떠올릴 것이다. 이 1차 계획의 초안이 바로 이승만 정부 시절 수립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다. <삼식이 삼촌>의 서사에서 내무부 직원 김산(변요한 분)이 힘써 기획했지만 정치권 인사들이 그 공로를 가로챘다는 식으로 포장된 바로 그 계획이다.

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아직 농업국가 단계에 머물러 있던 대한민국을 중화학공업 중심 공업국가로 바꾸어 놓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었다. 내수 경제만 생각하면 수입대체 산업화를 위한 경공업 진흥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휴전이 이루어진 지 불과 5-6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재침공 위협 아래 있었다. 따라서 군수공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중화학 공업 육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했다. 경제개발과 군수산업, 두 가지를 한 데 묶어 국가

주도 경제개발 계획을 진행하는 방식은 멀게는 프로이센 왕국의 비스마르크가, 가깝게는 소련의 스탈린이 원조라고 볼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처럼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산업혁명을 이룩한 선진국들과 달리 19세기의 프로이센, 그리고 20세기 초 소련은 농업국가에서 근대 공업국가로 빠르게 변화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주도 경제개발 계획을 시행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국무회의에 올라온 지 얼마되지 않아 1960년 4.19 혁명이 발발하면서 시행이 유보됐고, 장면 정부 시기와 박정희 정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 시기 중 약간의 보완을 거쳐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완성됐다.

이 계획의 핵심은 자본과 기술이 없는 민간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중화학 공업 육성의 과제를 국가 지원으로 성사시키는 것이었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자본이 없어 계획을 시행하지 못했지만, 박정희 정부는 1965년 한일 수교와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획득한 외화로 경제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현실화했다.

<삼식이 삼촌> 서사는 이 경제개발 계획을 둘러싼 정치모략과 암투, 그 가운데서 활약한 정치강패와 내무부 직원, 그리고 군 소장과 장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삼식이 삼촌> 주인공 박두철(송강호 분)과 그가 포섭한 주요인사 모두는 특권인식과 이권을 향한 탐욕에 찌든 기득권층 인사들을 도태시키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세워 정제된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려는 야심을 위해 움직인다.

이들은 새로운 정치질서 수립 과정에서 자신들이 부, 명예, 권력을 독차지하겠다는 욕심을 감추지 않는다. 박두철과 동조자들은 그들이 얻을 권력과 부가 그들이 달성할 과업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라 생각한다. 배

를 굶는 수많은 대한민국 민중을 빈곤에서 해방시키는 대업을 이룰 텐데, 그만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수축경제 시대의 반성: 성장 이데올로기와 변영신학을 포기해야 하는 수축의 시대

<삼식이 삼촌>은 이 박두철 일당의 행적을 통해, 경제의 양적 성장이 절대적 선(善)이라는 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주제의식을 공유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일본에서 먼저 유행했다. 1990-2000년대 일본 사회는 경제성장 정점에 도달한 뒤, 수축경제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강력한 견제와 함께 일본 내부 인구구조 급변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본 기업경영 상황은 암울했고 청장년층 할 것 없이 실업률이 급증했다. 당시 일본 미디어를 보면 세 부류의 콘텐츠가 크게 유행했다.

첫째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코믹물(쿠도 칸쿠로의 <키사라기 캐츠아이>와 <맨한탄 러브 스토리>가 대표적), 둘째는 암울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심리물이나 범죄물(<에반게리온> 같은 세카이계 애니메이션이나 히가시노 게이고 원작의 <백야행>이 대표적), 셋째는 지나간 경제 고도성장 시기를 그리워하는 기업 및 금융 관련 시대물(<화려한 일족>이나 <관료들의 여름>이 대표적)이다.

<삼식이 삼촌>의 캐릭터들은 <화려한 일족>과 <관료들의 여름>에서 엮이는 기업인들과 경제부처 관료들의 경제성장을 향한 열정과 야심을 공유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전장으로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비슷한 경제개발 과정을 거쳤던 두 나라이다 보니 경제의 양적 성장을 향한 열정 역시 비슷하게 닮아 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60년대 이후 약 60년이 넘도록 우리 한국 사회는 주로 양적 성장에 치우친 경제 이데올로기를 추종해 왔다.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가 가져다 준 안락함과 풍요에 취해 경제적 측면이 아닌 삶의 모든 가치 판단에까지 양적 성장 이데올로기를 적용시켜 왔다. 한 개인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가정을 꾸리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으며,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지, 이 모든 삶의 측면에 '양적 성장'이라는 가치관이 기본 가치판단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현 의대 진학 열풍은 그 대표적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교회에서는 신앙의 신실함을 판단하는 기준마저 양적 성장으로 환원해 버리는 기복적 변영신학이 지배적 영

향력을 발휘해 왔다. 교회의 출석성도 수, 헌금 금액, 예배당 크기가 곧 교역자의 신실함의 입증자료로 여겨지는 현재, 교회의 세태는 복음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라의 지속적 경제성장에 확고한 믿음을 가진 많은 이들에게는 참으로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이제 정점을 지나 끝없는 하락의 시기로 접어들려 하고 있다. 양적 성장의 광기에 질려버린 이들은 자의로든 타의로든 자녀 출산을 포기했고, 그 덕분에 인구구조는 무너지고 있다.

혹자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첨단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경제부흥의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비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생산도 활성화될 수 없다. 인공지능은 소비의 주체가 아니라 생산의 주체이다.

그렇다 해서 진보정치 진영에서 신봉하는 분배중심 정책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 분배는 성장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분배할 자원의 총량 자체가 급격하게 수축되는 사회에서는 분배정책 축소만이 해답이다.

향후 대한민국 사회는 성장경제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는 절대 대응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을 겪게 될 것이다. 자녀 세대의 수는 급감하고, 복지혜택은 줄고, 연금과 의료보험 재원은 고갈되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하락이 장기화되고, 세금 부담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런 악조건에 질린 능력 있는 젊은 세대는 보다 나은 삶의 여건을 지닌 국가들로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삼식이 삼촌> 같은 작품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때 활기차고, 강한 노동력을 지닌 젊은이들이 넘쳤으며,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한 희망과 야심이 넘쳤던 나라였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지나간 옛날을 회상하며 위안을 얻게 해주지만, 수축경제 사회의 현실에 맞는 지혜를 선사해주지는 않는다. <삼식이 삼촌>은 사실상 그저 지나간 낫두리에 지나지 않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도 지나간 양적 성장의 신학, 변영신학의 헛된 메시지에 붙들려 있게 된다면, 향후 कै말적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원주의 문화 범람으로 이미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려는 이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여기에 더해 인구구조 붕괴로 아예 교회에 출석할 젊은 세대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도 한국교회 교역자들과 신자들의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 문제가 사회 전체의 인구구조 붕괴와 맞물려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2024 SPECIAL PROMOTION

개척교회를 위한 스페셜 프로모션

개척교회의 칼라복사기 비용을 40~60% 절약할 수 있는 기회!

2024년 개척교회를 위한 칼라복사기 스페셜 프로모션이 완성되었습니다. 10년미만된 개척교회를 위한 프로모션입니다. 기존교회들은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선택한 복사기의 옵션, 모델, 사용량, 렌탈 기간에 따라서 Special discounted price가 결정되며 교회들의 렌탈가격은 모두가 다릅니다.

텍스트로 본인의 성함과 교회명을 남겨주세요. 전화드리고 간단 명료한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213 705 7778(KOR)
TEL: 213 999 7995(ENG)
213 663 8970(ENG)
greenmwild@gmail.com

GREEN M.WILD IMAGESYSTEMS

본사는 기독교일보 공식 후원업체입니다



OC전도회연합회, 제36회 연합성가합창제 성황리에 마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는 지난 2일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제 36회 연합성가합창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지난 6월 2일(주일)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제 36회 연합성가합창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합성가합창제는 리더십의 교제와 펜데믹을 거치면서 한동안 열리지 못했다가 6년 만에 부활해 기대를 모은 합창제였다. 은혜한인교회의 넓은 무대, 훌륭한 음향시설과 함께 OC지역 중대형 교회 성가대가 참여해 수준 높은 합창을 선보였다. 은혜한인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남가주동신교회,

감사한인교회, 엘바인침례교회, LW한인커뮤니티교회, 엘바인새생명한인교회 등 OC지역의 중대형 교회들이 대거 참여했고, Orange Mission Choir의 남성합창과 위트컴여성합창단의 여성합창이 어루러진, 구색면에서나 실력면에서 최고의 팀들이 참여했다는 평가다.

이번 합창제에는 남가주동신교회 백정우 목사, 엘바인침례교회 권태산 목사 등 참여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해, KWMC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 남가주교협 회장 최영봉 목사, OC교협 회장 심상은 목

사, 국가원로회의 미서부지부 상임의장 김향로 장로, OC장로협의회 배기호 장로,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서경원 장로, OC목사회 이원석 목사, OC한인회 서준석 전 이사장과 오승태 이사 등 OC와 남가주 교계를 대표하는 교계인사들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지도자들도 대거 참여해 900여명이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를 가득 채웠다.

주 로스앤젤레스 김영완 총영사와 연방하원 미셸 박 스틸 의원, 영감 의원 등은 축사로 참여를 대신했다.

한편 이날 합창제는 은혜한인교회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됐으며 동시 접속자수가 200명을 넘는 등 그 열기가 온라인에서도 이어졌다.

합창제는 오후 6시 정시에 시작했다. 사회는 28년차 교계 방송인 이자 언론인이며, 연합회 회장과 이사장을 두루 거친 윤우경 권사가 맡아 깔끔한 진행과 간간이 교회와 교계의 소식을 곁들인 소개는 합창제의 취지와 분위기를 더욱 살렸다.

인사말에서 민김 이사장은 “36회 연합성가합창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교회를 제공해 주신 한기홍 목사님과 출연해 주신 많은 교회 성가대와 합창단에 감사한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환영사에 나선 은혜한인교회 담임이며 선교사자녀 장학기금사업의 명예대회장인 한기홍 목사는 “OC 교회가 연합하여 합창을 드리고 그 수익금으로 선교사 자녀를 돕는다고 하니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 일인가, 이 일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했다.

합창제의 취지와 선교사자녀 장학기금 현황을 소개하기 위해 단에 오른 신용 회장은 “전도회연합회가 꿈꾸는 사역이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가 협력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전도회연합회의 꿈이자 비전”이라며 1부 합창제를 감상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4회에 걸쳐 177명의 선교사 자녀들에게 88,500불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OC교계 여러 교회와 단체, 선한 뜻을 가진 성도님들이 한 일”이라고 말하고, “제5회 선교사자녀 장학금으로 몇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을지는 여러분의 참여에 달렸다”고 참여를 권면했다.

합창제는 Orange Mission Choir의 조용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남성합창으로 문을 열었고, 이어진 위트컴여성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이 이미 청중을 고품격 클래식 공연으로 인도했다. 특히 평균연령 75세의 시니어 성가대인 엘바인새생명한인교회와 LW한인커뮤니티교회의 찬양에는 많은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무대를 가득 채운 남가주동신교회 여성콰이어, 남가주사랑의교회, 은혜한인교회의 무대는 웅장함이 느껴졌다. 감사한인교회 지휘자의 섬세함과 엘바인침례교회 지휘자의 카리스마 넘치는 열정적인 지휘가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전 출연자가 무대에 올라 은혜한인교회의 넓은 무대를 가득 메운 연합합창단은 음악감독을 맡은 김미선 지휘자의 지휘 아래 할렐루야를 함께 부르며 휘날레를 장식했다.

연합회는 이번 합창제의 수익금 일부는 오는 제10차 KWMC 한인 세계선교대회에 참여한 선교사자녀들에게 우선 지급하고, 일부는 10월에 있을 골프대회와 함께 5차 선교사자녀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준 기자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박사, 98세로 별세

‘희망의 신학자’로 불리는 독일의 세계적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Jurgen Moltmann) 박사가 향년 98세로 3일(현지 시간) 별세했다.

1926년 4월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그는 2차 세계대전 독일군으로 참전했다가 연합군의 공습으로 3년간 포로로 지냈다. 그 시기 포로수용소에서 성경책을 읽으며 절망 속에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고 이후 신학자의 길을 걸었다.

괴팅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퍼탈대학 교수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그는 본대학을

거쳐 튀빙겐대학에서 은퇴할 때까지 신학을 가르쳤다. 독일 고백교회 담임목사 등도 역임했다. 그는 칼 바르트 이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현대 신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블로흐의 무신론적 ‘희망의 철학’에 대한 신학적 응답이었던 「희망의 신학」(1964)을 통해 세계적 신학자로 떠오른 그는 지금까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1972),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1975), 「삼위일체와 하나님 나라」(1980),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1985), 「예수 그리스도의 길」(1989), 「생명의 영」(1991), 「오시는 하나님」(1995),

「희망의 윤리」(2010) 등 다수의 저술을 남겼다.

특히 고인은 생전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하기도 했다. 1975년 한신대 박봉량 교수의 요청으로 한국을 처음 찾은 그는 ‘민족의 투쟁 속에서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후 한국과 꾸준한 교류를 맺었다. 지난 2018년 한신대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지난 2022년 튀빙겐대학 직계 제자인 김균진 박사(연세대 명예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신학아카데미 고문으로서 마지막까지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김진영 기자



故 위르겐 몰트만 박사. ©한신대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40 부터 시작 \$20 부터 시작

매직 스테이트
\$150 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대한예수교장로회 · 미주총회서부노회



주안에교회

2대 담임목사

청 / 빙 / 공 / 고

주안에교회는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1,70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오며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왔습니다. 또한 36개국에서 사역하는 80여분의 파송/협력선교사와 미자립교회 및 선교단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4개동의 교육관 채플건축의 완공을 앞두고 봉헌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안에교회의 담임목사인 최혁 목사는 하나님나라 확장과 지역복음화를 위한 주안에교회 다음 단계를 위해 담임목사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제 2대 담임목사를 청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안에교회 당회는 최혁 목사의 선한 뜻을 존중하고 제 2대 담임목사 청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혁 목사는 아직 다음 사역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지금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7월 말까지만 설교사역을 하고, 8월부터 청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부터 청빙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잠시 쉼과 기도, 외부 설교사역과 부흥회 인도를 하면서 다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예정입니다.

또한, 청빙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연말에 돌아와 인사하고 사임할 예정입니다.

- 주안에교회 당회 -

INCHRIST COMMUNITY CHURCH

제 2대 담임목사 청빙과정은 '청빙위원회' 와 당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진행할 것이며, 청빙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청빙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 ◆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 정규 신학대학원(M.DIV 학위 소지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회 경력 (담임목사, 부목사, 신학교수, 선교사 포함) 5년 이상인 분
- ◆ 본 교단 총회 및 사회법에 무효한 분
- ◆ 미국내 합법적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 ① 지원서 (지정 양식)
 - ② 자기소개서- 신앙고백서 포함 (지정 양식)
 - ③ 목회 계획서 (목회 동기, 철학, 비전과 바람직한 교회상)
 - ◆ 학위 증명서 (대학, 대학원)
 - ◆ 목사안수 증명서 및 노회 소속 증명서 각 1부
 - ◆ 시무, 재직 증명서(교회, 신학교, 기관 등)
 - ◆ 설교 동영상 혹은 영상링크 3편 (2년 이내)
 - ◆ 신학교수, 목회자 추천서 2통 (연락처 포함)
- ①, ②, ③은 본교회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접수기간 및 제출처

- ◆ 접수기간 : 2024. 6. 10.(월) ~ 7. 8.(토)
- ◆ 제출방법 : 모든 지원서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
- ◆ 제출처 : 청빙위 이메일 iccc.session24@gmail.com

* 유의사항

- (1) 제출된 서류, 파일은 반환하지 않으며 결정 후 파쇄됩니다. (2)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청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 제출 서류의 양식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5) 문의 사항은 다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사무실 : (818) 363-5887, 이메일 : iccc.session24@gmail.com